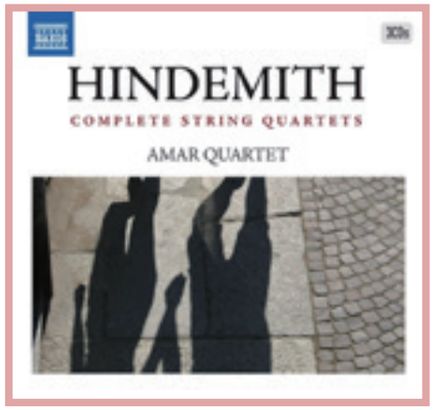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집 세트

아마르 사중주단

20세기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 작품 중 하나인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집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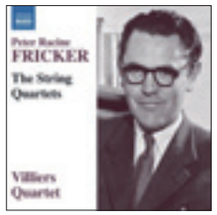
힌데미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아마르 사중주단은 힌데미트가 결성하고 비올라 주자로 활동했던 같은 이름의 현악사중주단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들이 녹음한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곡은 낙소스 레이블에서 3장의 음반으로 출시되어 호평을 받았다. 본 음반은 이전에 출시된 3장의 음반을 하나의 세트로 묶은 것이다. 실용음악을 향한 힌데미트 발걸음을 일별하는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 작품 중 하나인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곡을 하나의 세트로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소장과 감상을 적극 권한다.

8.503290 [3CDs]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슈포어: 교향곡 7번('인생의 성과 속') & 교향곡 8번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전통과 혁신, 슈포어 교향곡의 두 가지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들
8.555527



프리커: 현악사중주 1 & 2 & 3번, 아다지오와 스케르초
빌러즈 현악사중주단
프리커의 음악적 고뇌가 담긴 현악사중주 작품들
8.571374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2번
안톤 베레코프스키(바이올린), 알렉산더 첸초프(비올라),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첼로), 엘더 네볼신(피아노)
유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섬세한 호흡 속에 드러나는 긴밀한 흐름
8.572799

카리시미: 8개의 모테트
카리시미 콘소티움, 게릭 코모(지휘)
오라토리오 못지않은 작품성을 갖고 있는 카리시미의 모테트 작품들
8.573258

체르니: 오르간 작품집
이언 퀸(오르간)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체르니의 폭 넓은 작품 세계
8.573425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평민 귀족 &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모음곡(오케스트라버전)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앤 팔레타(지휘)
극중극의 관계에 있는 두 작품, 유려하고 우아한 선율과 음향이 돋보이는 편곡과 연주
8.573460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2집 (5–8번)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스위스 챔버 오케스트라
품격있는 분위기와 우아한 선율, 현란한 기교가 결합된 드비엔느의 플루트 협주곡
8.573464

엔리케 소로: 관현악 작품집
칠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세 루이스 도밍게스(지휘)
이탈리아와 칠레 전통 음악의 매력적인 결합
8.573505

모뉴슈코: 발레음악 작품집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안토니 비트(지휘)
오페라 적인 색채와 폴란드 민족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모뉴슈코의 관현악 작품
8.573610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17집
숀 케나드(피아노)
윤기와 생생함을 머금은 색다른 해석
8.573708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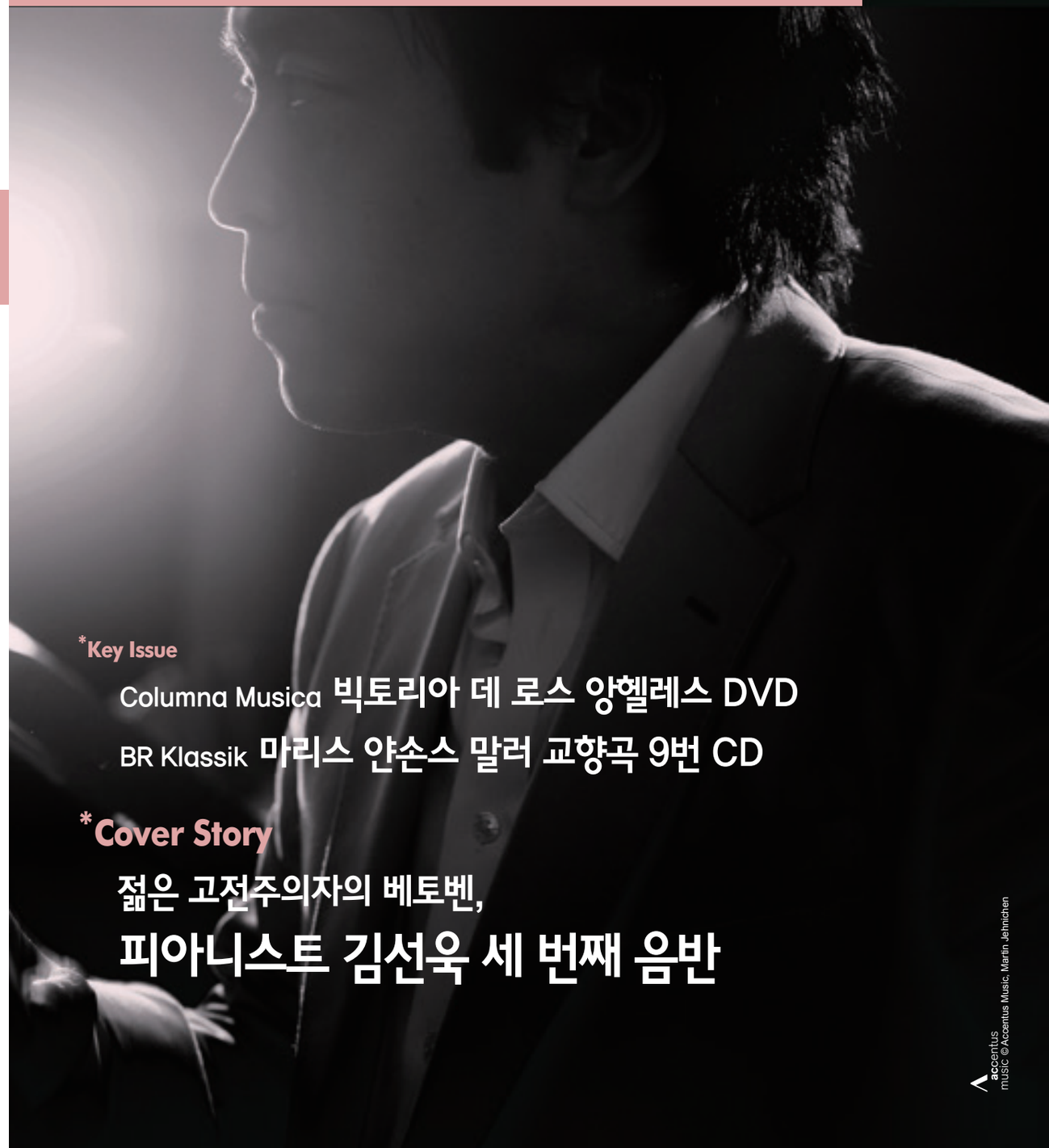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너스/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70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70호 | March 2017



*Key Issue

Columna Musica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DVD

BR Klassik 마리스 얀손스 말러 교향곡 9번 CD

*Cover Story

젊은 고전주의자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선욱 세 번째 음반

accentus
music ©Accentus Music, Martin Jehnichen

Key Issue

Columna Musica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DVD 3
BR Klassik 마리스 얀손스 말러 교향곡 9번 CD 35

Cover Story

젊은 고전주의자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선욱 세 번째 음반 4-5

CD

Accentus 6
Arco Diva 6
Aurora 7-8
BR Klassik 9
Capriccio 9-11
Collegium 11
Columna Musica 12-14
Divine Art 14
Dynamic 15
Gramola 16-17
Grand Piano 17-18
LPO 19
MD&G 19-20
Naxos 20-27
Ondine 28
Orchid 28
Philharmonia.rec 29
RPO 29
Solo Musica 30
Sono Luminus 30
Steinway & Sons 31
Tafelmusik 31
Toccata Classics 32-33
Yarlung Records 34

DVD & Blu-ray

Accentus 36-37
Arthaus 37
BelAir 38-41
Belvedere 42-43
BR Klassik 44-45
C Major 46-50
Columna Musica 51
Dynamic 52-54
EuroArts 55-57
Gramola 58
OpusArte 59
EuroArts(4K Ultra HD) 60

LP

Aurora 61
Grand Piano 61
Yarlung Records 62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영상으로 만나는 노래하는 보석,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몽세라 카바예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로 손꼽히는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의 1989년 · 1992년 스페인 공연 실황으로, 말년에도 목소리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스페인 · 라틴 아메리카계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에서 출시된 로스 앙헬레스 컬렉션의 '핵'을 이루는 영상물로 1DVD에는 29곡, 2DVD에는 14곡과 3곡의 보너스 트랙이 수록되어 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스페인 작곡가들의 노래를 통해 스페인 특유의 음악적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영상물만의 매력이다.

Columna Musica 1CM0257 [2DVDs]

두 장의 DVD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앙헬레스가 고국에서 가진 1989년과 1992년 실황을 각각 담고 있으며, 말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를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화질이 미흡한 대목도 있지만 감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음질 면에서는 그녀가 노래하던 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현장의 모습과 열기를 생생히 재현한다. 앙헬레스는 22세 때 '피가로의 결혼'의 백작부인으로 데뷔했으나 국제적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24세 때인 1947년 제노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부터였다. 1950년 파리, 뮌헨 등지에 데뷔했고 같은 해 카네기 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지며 뉴욕 데뷔를 기록했다. 1961년에 이르러 바이로이트까지 입성했다. 당시 맡았던 '탄호이저'의 엘리자베트, 그리고 메트 오페라에서의 '오텔로'의 데스데모나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오페라 레퍼토리 역시 상당히 넓다.

1DVD는 1989년 5월 19일, 스페인 카탈라냐에서의 리사이틀 실황이다. 앙헬레스는 스페인의 가요를 비롯하여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바도, 그라나도스, 파야, 모란테, 몸포우, 에드아르드 톨드라, 알베니즈, 몽트살밧제 등이 작곡한 스페인 특유의 향내가 배어 있는 곡들을 노래한다. 그녀의 무대를 통해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적 유산을 만날 수 있다. 총 29개의 트랙 중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오페라 '카르멘'의 한 대목을 부른다. '클라벨리토스'를 끝으로 관객들을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매 곡이 끝날 때마다 무대로 날아든 꽃이 쌓여 있는 광경 속에서 자국의 음악가를 향한 관객의 열광과 찬사를 느낄 수 있다. 피아노 반주는 스페인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마누엘 가르시아 모란테가 맡았다. 2DVD는 1992년 4월 24일, 스페인 리우에 위치한 대극장 실황으로 총 1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앙헬레스는 스페인이 낳은 작곡가 카스텔, 마누엘 플라, 그라나도스, 몽트살밧제, 페드럴, 모란테 등과 슈베르트의 '숭어', 비제의 '카르멘'의 아리아 등을 노래한다. 이 역시 1DVD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노래를 통해 스페인의 음악적 유산과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피아노 반주는 스페인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마누엘 가르시아 모란테가 맡았다. 2DVD에는 보너스 트랙(총 3트랙)이 수록되어,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현장에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43쪽 분량의 부클릿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스페인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의 회상이 담긴 글(스페인어 · 영어)과 가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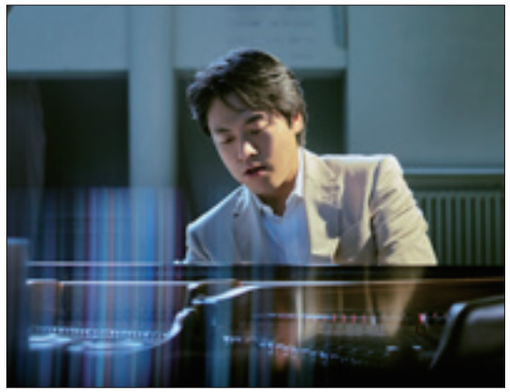
[앙헬레스와 함께하는 콜롬나 무지카에서 출시된 CD]

1CM0231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콜렉션 'SONG TO REMEMBER'

1CM0252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콜렉션 'Victoria from the heart'

젊은 고전주의자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선욱, 세 번째 음반을 만나다!

2015년부터 시작된 김선욱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사이클 중 그 두 번째 음반이 드디어 발매됐다. 이번 앨범은 베토벤의 3대 소나타가 수록된 매우 중요한 연주로 김선욱 특유의 고전적 면모가 돋보이는 명연들이다. 빌헬름 켐프를 연상시키는 견고한 구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서정성과 특유의 주술적인 매력을 가미한 〈비창〉, 어둡게 착색된 톤으로 작품에 내재된 음울함과 폭력성을 드라마틱하게 대비시킨 〈월광〉, 탁월한 톤 컨트롤을 통해 작품의 숨겨진 속살을 드러내는 〈열정〉 등 모든 연주가 새로운 매력으로 가득 차있다. 베를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탁월한 녹음도 이 음반의 가치를 한층 배가시킨다.



[보조자료]

리즈 콩쿠르 최연소 및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로 발군의 행보를 보여온 김선욱이 베토벤 3대 피아노 소나타를 수록한 앨범을 독일 악첸투스 레이블을 통해 전세계 발매한다. 2015년 11월에 발표한 발트슈타인, 함머클라비어에 이은, 김선욱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사이클의 두 번째 앨범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음향을 자랑하는 베를린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2016년 8월에 녹음되었다. 이는 2015년 6월 2장의 앨범 녹음 이후 14개월 만에 이루어진 새로운 녹음작업이다.

음악역사상 가장 사랑받아온 피아노 소나타이자 레코딩 역사상 가장 많이 녹음되어온 피아노 소나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비창(1798), 월광(1801), 열정(1805)을 수록한, 피아니스트로서의 커리어에서 중요할 수 밖에 없는 레코딩이다. 30대의 길목(1988년 4월생), 리즈콩쿠르 우승(2006년 9월) 이후 10년 – 음악의 정수를 향해 묵묵히 걸어온 그간의 순례의 여정, 깊은 성찰과 부단한 단련을 거쳐온 지난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고전적 면모 돋보이는 명연을 선보이고 있다. 어떤 피아니스트로 남고 싶은가 – 약 10년 전 리즈 콩쿠르 우승 직후 십대의 피아니스트에게 물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항상 발전하는 음악가, 생명력이 긴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답했던, 그 실체적 결과물을 매번 현재진행형으로 경험케 해주었던 한 믿음직한 피아니스트가 내미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앨범이다.

베를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녹음한 지난 프랑크와 브람스의 작품집은 김선욱의 베토벤 사이클 첫 번째 앨범 발매 직후 두 번째로 선보인 음반이었다. 연속성의 차원에서 다소 느닷없는 레퍼토리의 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의 베토벤관을 매우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전주곡에 다름이 아니었다. 특히 첫 곡인 프랑크의 〈프렐루드, 코랄과 푸가, FWV21〉는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바흐시대의 대위법을 근간으로 베토벤, 리스트로 이어지는 피아노 음향의 확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혼합하여 19세기적 상상력으로 버무린 대작이다. 이번에 새롭게 녹음한 〈비창〉, 〈월광〉, 〈열정〉은 일명 베토벤 3대 피아노 소나타로 불리는 매우 '유명한' 작품들로, 음반의 내지를 쓴 음악학자 미하엘 라덴부르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주자가 특별한 답을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녹음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김선욱은 프랑크가 의고적 어법을 통해 새로운 19세기적 음향을 구현했던 것처럼 이번 앨범에서 특유의 고전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인상적인 결과물을 제시했다.

가장 돋보이는 점은 마치 빌헬름 켐프와 같이 작품의 뼈대를 매우 견고하게 설계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세 개의 소나타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작품의 너비와 깊이가 비약적으로 확장되는 〈열정〉 소나타에 이르러서 한층 빛을 발한다. 특히 1악장 「운명의 동기」가 파국처럼 등장하는 파트를 들어보자. 빛과 어둠의 이미지가 매우 큰 낙폭으로 대비되며 긴장감이 고조되지만 너비가 깊이를 초월해서 작품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 하성부와 상성부의 균형적인 음량배분을 통해 단단한 골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구조를 너무 강조하면 톤이 무채색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김선욱은 음색을 조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효과적으로 페달링을 구사하며 배음의 확산을 자연스럽 개방하여 특유의 어둡게 착색된 톤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담백하나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나 눅진하지 않은 톤은 완전히 김선욱의 것이다.

〈비창〉소나타의 템포는 매우 신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라베–알레그로 섹션의 템포 변화를 미묘하게 변화시켜 세밀한 표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라베 파트의 템포는 반복되며 점점 느려지는 인상인데 작품의 내적 구조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주술적인 느낌마저 든다.

〈월광〉은 앞서 언급한 김선욱의 짙은 톤으로 인해 그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작품이다. 장송곡의 분위기에 걸맞는 음침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지 않아도 톤에 내재된 어두운 색채가 작품의 비극성을 부각시킨다. 음울하고 난폭한 1, 3악장 사이에 핀 한 떨기 꽃 같은 알레그레토 악장은 그간의 무게감을 떨쳐낸 듯 가볍게 노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고유의 중량감은 여전히 느껴진다.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는 최근 들어본 연주들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매우 격렬한 연주이지만 하성부에 무게중심이 잘 배분하고 아고긱을 과용하지 않은 탓에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며 쾌적한 템포와 폭발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안정적인 연주를 들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선욱이 모범적인 연주로 손꼽는 언드라시 시프의 연주와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두 연주는 템포의 설정이나 반복지시 등에서는 일부 비슷한 면을 보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결을 달리한다. 특히 시프가 안젤로 파브리니 버전의 뵈젠도르퍼와 스타인웨이를 이용하여 무채색에 가까운 투명함을 지향했다면 김선욱은 현재까지 스타인웨이 함부르크 모델 D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무게감과 색채감이 있는 밀도있는 톤을 선호한다. 이미 종결된 시프의 베토벤 사이클이 작품에 부과된 내적 무게를 덜어내는 작업이었다면 김선욱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전적 면모로 베토벤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무게감에 자신의 중량을 더 얹어 놓은 것 같다. 현재진행형인 베토벤의 여정에 단정적인 수사를 첨언하고 싶지 않지만 김선욱의 베토벤은 분명히 새로운 고전주의자의 탄생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음악칼럼니스트, 노태헌

Accentus ACC 30409

피아니스트 김선욱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

[수록곡]

Beethoven Piano Sonata
No.13 C minor Op.8 <Pathétique>

01. Grave. Allegro di molto e con brio
02. Adagio cantabile
03. Rondo. Allegro

Beethoven Piano Sonata
No.14 C-sharp Op.27/2 <Moonlight>

04. Adagio sostenuto
05. Allegretto
06. Presto agitato

Beethoven Piano Sonata
No.23 F minor Op.57 <Appassionata>

07. Allegro assai
08. Andante con moto
09. Allegro ma non troppo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music

ACC 30405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버르토크: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불레즈: 앙템 1, 2

미하엘 바렌보임(바이올린), IRCAM(전자음악)

바흐부터 불레즈까지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완벽한 콘서트

미하엘 바렌보임은 명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들로,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바흐, 버르토크, 불레즈 자신만의 3B를 녹음한 이 음반에서 이러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은 감상적인 서정성을 담아 자신만의 바흐를 만들어냈으며, 버르토크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는 거칠고 난해한 작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여유로운 프레이징으로 제련했다. 불레즈의 '앙템 1'과 '앙템 2'는 바렌보임의 주요 레퍼토리로서 완벽한 연주력을 보여준다. 이 음반은 하나의 완벽한 콘서트이다.

Arco Diva www.arcodiva.cz

UP0185

비발디, 알비노니, 타르티니, 텔레만, 벨리니의 트럼펫 협주곡

귀도 세게르스(트럼펫), 체코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르두비체, 마레크 슈틸레츠(지휘)

트럼펫의 맑고 깨끗한 사운드로 듣는 하이-바로크의 기쁨

귀도 세게르스는 벨기에 출신의 트럼페터로, 모리스 앙드레의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했으며 브뤼셀 왕립음악원 콩쿠르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현재 뮌헨 필하모닉 수석이자 라이프치히 멘델스존 음악고등학교의 트럼펫 교수이다. 그는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을 녹음한 이 음반에서 트럼펫이 내는 고음의 맑고 깨끗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텔레만을 제외하고 본래 바이올린이나 오보에를 위한 작품을 트럼펫으로 연주하여 더욱 난이도가 높지만, 세게르스의 연주는 오히려 트럼펫의 매력을 더욱 고양시키며 하이바로크의 기쁨을 선사한다.

UP0186

슈만: 피아노 삼중주 1번

브람스: 피아노 삼중주(혼 삼중주 편곡) 등

페트로프 피아노 삼중주단

세계적인 실내악 연주자 슐마이스터와 유럽 최대 피아노 제조사 페트로프의 콜라보

페트로프 피아노 삼중주단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체코의 비한 사중주단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얀 슐마이스터가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슈만의 '피아노 삼중주 1번'에서 활기에 찬 플로레스탄과 같은 바이올린, 사색적인 오이제비우스와 같은 첼로,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마이스터 라로와 같은 피아노로 완벽한 슈만을 만들어낸다. 브람스의 '피아노 삼중주, Op. 40'은 유명한 '혼 삼중주'를 브람스 자신이 편곡한 것으로, 원곡과는 다른 감성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슈만의 '캐논 형식의 네 개의 작품'은 바이올린과 첼로의 완벽한 대화를 들려준다.

Aurora www.aurora.ws

오디오파일 음반 마스터링의 명스튜디오 독일 Pauler Acoustics studio에서
SACD re-mastering, SONY Germany - SACD제작

CDS043SA [2SACD] **독일제작**

파가니니 :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30개의 소나타

루이지 알베르토 비앙키(바이올린), 프레다 마우리치오(기타)

파가니니 '루카' 소나타를 최초로 담은 앨범

바이올린과 기타가 함께 하는 파가니니(1782~1940)의 소나타 6곡이 수록된 앨범. 이 곡들은 파가니니가 1805~1808년 루카 지방에 머물면서 쓴 자유로운 형식의 소품들로 일명 '루카' 소나타로 통용된다.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파가니니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서 빛을 보았는데, 바이올리니스트 루이지 알베르토 비앙키와 기타리스트 프레다 마우리치오에 의해 처음 녹음되었기 때문에 이 앨범이 더욱더 소중히 다가온다. 각곡마다 '소나타1 마담 프라시네트에게 헌정' 등 헌정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파가니니 특유의 고음과 빛깔이 비앙키의 기교와 감수성에 의해 생생히 전달되고, 동행하는 기타는 단단하고 애수를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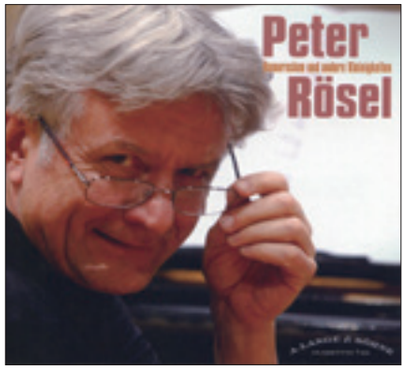
CDS294SA [SACD] **독일제작**

파가니니 :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루카 소나타

루이지 알베르토 비앙키(바이올린), 프레다 마우리치오(기타)

여인에게 바치는 파가니니의 다정다감 소나타

루카의 교향악단 악장으로 초청된 파가니니는 1806~1809년에 루카에 머물렀다. 루카는 나폴레옹의 여동생 에리자 바치오키에 의해 지배되던 곳. 그 시절 작곡한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작품이 이른바 '루카 소나타'이다. 짤막한 2개의 악장, 비교적 단순한 바이올린 선율, 소나타 형식의 특징을 갖췄다. 앨범에 수록된 Op.3(소나타 1~6번)과 Op.8(소나타 1~6번)은 각각 다른 여성에게 헌정되었는데, 전자가 다정하고 수수하다면 후자는 정교한 구성을 갖고 있다. 슈퍼 오디오 CD에 담긴 비앙키의 음색은 크리스털잔처럼 빛난다.



KING 1004 [CD] / KING 1004SA [SACD]

피터 뢰젤이 연주하는 사랑스런 피아노 소품들

바흐 외 12명 작곡가: 19곡의 소품들

피터 뢰젤 (피아노)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를 아우르는 피아노 선율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멘델스존, 그리그, 슈만, 차이콥스키, 슈베르트, 베버, 라흐마니노프, 슈베르트, 쿠바 작곡가 에르네스토 레오쿠나(1896-1963), 13명의 작곡가가의 19곡이 수록된 앨범이다. 20대에 브람스에 깊이 빠져들었던 피터 뢰젤(b.1945)이 내면적인 로맨티시즘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이 빛을 발하는 음반이며, 한편으론 피아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싶은 초심자에게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음반이다. 음악은 한없이 친숙하여 거리낌이 없으며, 뢰젤의 터치는 수면에 잔잔한 물결을 내듯 한없이 부드럽다.

게리카가 연주하는 오디오파일 음반들

KING 1001 SA **[SACD] 독일제작**
게리카 오디오파일 셀렉션
Londonderry Air, 바흐: 'G선상의 아리아' 외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몬 루이스(피아노 · 오르간)

당신의 스피커를 울릴 '오디오애호가를 위한 선곡집'
세계 최고의 더블베이시스트 중 게리 카(b.1942)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선사하는 저음역의 마술은 국내 음악애호가들과 그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렸던가. 보스턴심포니 상임지휘자였던 세르게이 쿠세비츠키로부터 물려받은 1611년산 아마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니 보이'와 '썸머타임', 림스키 코르사포크 '인도의 노래', 오르간과 함께 하는 알비노니 '아다지오', 포레 '꿈을 따라서',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등 유명한 소품 13곡을 담은 앨범이다. 절판되었기에 더욱 귀해진 CD가 다시 돌아와, 저음역의 깔끔한 맛으로 당신의 스피커를 울린다.

KING 1002 SA **[SACD] 독일제작**
게리카가 연주하는 일본풍의 노래들
일본 엔카 '황성의 달' 외 22곡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몬 루이스(피아노 · 오르간)

일본 전통적 분위기를 노래하는 더블베이스
세계 최고의 더블베이시스트 중 게리 카(b.1942)의 독특한 취향이 반영된 앨범이다. 수록된 23곡은 1901년에 작곡된 '황성의 달'을 비롯하여 20세기 초 · 중반에 작곡된 곡들로 대중들로부터 사랑 받던 노래들로 일본 엔카(演歌) 풍의 노래들이다. 게리 카는 일본의 노래들을 담은 앨범을 2집이나 발매했는데, 두 장 모두 일본의 전통적인 감정과 분위기를 잘 담았다. 보스턴심포니 상임지휘자였던 세르게이 쿠세비츠키로부터 물려받은 1611년산 아마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퍼 오디오 CD로 녹음되어 베이스의 생생한 저음을 감상할 수 있다.

KING 1003 SA **[SACD] 독일제작**
게리카가 연주하는 포스터 가곡과 흑인 영가
Gary Karr " Spirituals Foster Songs "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몬 루이스(피아노 · 오르간)

더블베이스가 노래하는 노스탤지어, 포스터의 가곡과 흑인영가
더블베이시스트 게리 카(b.1942)의 신들린 듯한 연주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부신 선율을 뿜어내는 것 같은 감동이 자리한다. 이 앨범에서 게리 카는 느슨하고 즉흥적이며 짙은 서정이 배어있는 포스터(1826~1864) 작곡 '켄터키 옛집' '오, 수잔나' 등의 9곡과 '제리코의 싸움'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추억 어린 멜로디들이 흐르는 흑인영가 10곡, 이렇게 총 19곡의 노래를 들려준다. 수퍼 오디오 CD에 담긴 저음역의 소리는 마음을 평안하고 부드럽게 앉혀준다. 게리 카의 1611년산 아마티 사이로 고개를 드는 루이스의 오르간 연주도 성스럽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51 **[추천음반]**
말러: 교향곡 9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조락(凋落)하는 풍경 너머 '영원'을 향해있는 말러의 시선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실황이 드디어 음반으로 출시되었다. '영원(ewig)'의 공명이 물결치는 1악장 초반부에서부터 신랄하고 리드미컬하게 비틀거리는 죽음의 춤사위(2악장과 3악장), 모든 것들과의 이별이 담긴 4악장에 이르기까지 얀손스는 차분히 그리고 충실하게 말러의 메시지를 읊고 있다. 특히, 4악장은 익히 유명한 이전의 명반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조락(凋落)하는 풍경을 딛고 서서 여전히 이별을 주저하고 있지만, 그 너머의 재생과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말러의 마지막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반드시 들어봐야 할 음반이다.

***2016년 10월 20–21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 실황 녹음**

900149
말러: 교향곡 3번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게힐트 롬베르커(메조소프라노), 아우크스부르크 성당 소년합창단,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하이팅크만의 '평온한 힘'으로 그린 말러 교향곡 3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60년 이상의 인연을 맺어온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는 이 악단의 자체 레이블(BR 클래식)을 통해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말러 교향곡 9번을 취입한 바 있다. 이 앨범은 2016년 6월 15~17일에 가슈타익에서 있었던 실황 앨범으로, 1악장(CD1/35:49), 2~6악장(CD2/65:39)로 구성되었다. 현악은 '온화'하게, 관악은 '편안'하게 가져가는 하이팅크는 한마디로 '평온한 힘'으로 6개의 악장을 관통한다. 4악장에서 메조소프라노 게힐트 롬베르커가 안정감을 더해주고, 6악장에 이르면 마치 조용한 성당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900910
바흐: b단조 미사, BWV 232
크리스티나 란트샤머(소프라노), 안케 폰둥(메조소프라노), 케네스 타버(테너) , 안드레아스 볼프(바리톤),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 콘체르토 쾰른, 페터 딕스트라(지휘)

바흐 음악의 위대한 결정체를 조탁하는 딕스트라의 손길, 또 하나의 수작
딕스트라와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의 음악 여정은 화제의 '마태 수난곡'에 이어 이제 바흐 'b단조 미사'에 도달했다. 딕스트라는 예전에 세이지 오자와와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의 음반(Philips 468363, 2002)에서 코러스 마스터로 참여 했는데, 본 음반에서는 자신의 손길로 직접 바흐 음악의 위대한 결정체를 조탁(彫琢)하고 있다. 콘체르토 쾰른의 유려한 연주, 합창단과 성악진의 싱그러운 목소리에 묻어나는 오롯함, 입체적이고 명징한 음색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만족스럽다. 또 하나의 수작이 탄생했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8006
보이스: 여덟 개의 교향곡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네빌 마리너(지휘)

18세기 중반 영국 음악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중한 교향곡들
윌리엄 보이스는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영국 최고 권위의 '마스터 오브 킹스 뮤직'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 칭호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시대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헨델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보이스는 교향곡과 실내악 등의 기악 음악과 왕실을 위한 합창곡과 연극음악 등을 남겼다. 이중에서도 여덟 개의 교향곡은 1928년에 그의 재발견과 함께 출판되면서 오늘날 그의 대표작으로 연주되고 있다. 프랑스의 서곡과 이탈리아의 다악장 교향곡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낙천적 기풍으로 가득하다.

C8010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보칼리제(관현악 버전)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네빌 마리너(지휘)

당신이 알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명연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은 직전에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3번'처럼 음향이 극도로 풍부하며, 낭만음악의 드라마틱한 이미지가 농도 짙게 담겨있는 걸작이다. 특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3악장은 매우 인기가 높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은 이 곡의 이러한 특징들, 즉 유려한 멜로디와 중후한 화음, 그리고 낭만적이고 극적인 스토리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수록된 '보칼리제'는 본래 라흐마니노프의 '열네 곡의 가곡, Op. 34' 중 마지막 곡으로, 아름답고 아련한 선율로 큰 감동을 주는 명곡이다.

C8013

케루비니: 샤를 10세 대관식 미사, 하이든의 죽음에 바치는 찬가

슈미게(소프라노), 힐, 바르바치니(테너), 쾰른 방송합창단,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페로(지휘)

베토벤이 칭송해마지 않았던 케루비니의 대표적인 합창곡

케루비니는 이탈리아 피렌체 태생이지만 20대 후반에 오페라로 파리에 진출한 후 82세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파리에서 살았다. 그는 베토벤이 자신의 동시대 작곡가 중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칭송할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다. 케루비니의 주요 작품은 오페라와 종교합창곡으로, '샤를 10세 대관식 미사'는 그의 대표적인 종교합창곡 중 하나이다. 샤를 10세는 시민혁명 후 왕정복고를 통해 1825년에 왕위에 오른 왕으로, 그런 만큼 매우 웅장하고 엄숙하며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하이든의 죽음에 바치는 찬가'는 비통함과 찬사가 어우러진 걸작이다.

C8015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돈 후안, 틸 오일렌슈피겔, 카프리치오, 장미의 기사 모음곡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네빌 마리너(지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톡톡 튀는 초기곡과 완숙한 후기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독일 낭만주의의 최후를 장식한 작곡가로, 고전적인 화음과 자유로운 화성 진행으로 산뜻한 느낌을 주며, 교향시라는 낭만주의의 산물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 음반은 그의 교향시 중에서 초기곡인 '돈 후안'과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을 수록했다. 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 곡에서 네빌 마리너는 풍부한 악상들 하나하나가 돋보이도록 다듬었다. 반면에 함께 수록된 '장미의 기사 모음곡'과 '카프리치오'는 오페라에서 가져온 후기곡으로, 자유롭고 화려한 멜로디와 하모니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낸다.

C5269

레비나: 피아노 협주곡 1, 2번

마리아 레트베르크(피아노),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아리아네 마티아흐(지휘)

라흐마니노프를 계승하는 레비나의 로맨틱 심포닉-콘체르토

우크라이나 출신인 자라 레비나는 글리에르와 미야스코프스키를 사사했으며, 림스키-코르사코프와 라흐마니노프를 연상케 하는 낭만적 음악으로 소련 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36세 때인 1942년에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을 계승하는 중후한 음향과 심포닉-콘체르토를 계승하는 낭만 시대의 거대한 스케일과 과감한 극적 표현을 보여준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75년 작품으로, 그녀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단악장이지만 네 악장의 모든 요소를 넣어 한 인간의 거칠었던 인생을 그린다.

C5276

리스트: 파가니니 초절기교 연습곡, 파가니니 대연습곡

보이체흐 발레체크(피아노)

리스트가 남긴 파가니니 연습곡의 세 가지 버전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음반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 젊은 리스트는 27살에 그 꿈을 확인하는 곡을 썼다. 바로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 S.140'이었다. 이 곡은 파가니니의 '24 광시곡'과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 주제를 가져와 만든 것으로, 모두 여섯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스트 본인만이 연주할 수 있었던 최상의 기교를 넣어 만든 화려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 중에 세 곡은 즉시 수정되었으며, 13년 후에 다시 전면 개정하여 '파가니니 대연습곡, S.141'을 완성했다. 결국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음반에서는 이 모두를 들을 수 있다.

C8011

슈니트케: 옛 풍의 모음곡, 바이올린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히에로니무스 보쉬 단편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바이올린, 지휘), 긴딘(피아노), 코르차크(테너), 모스크바 비르투오시

20세기 후반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담은 슈니트케의 다양한 협주곡들

알프레드 슈니트케는 20세기 후반 소련 출신 작곡가 중에서도 가장 세기말적이었다. '바이올린과 실내관현악단을 위한 소나타'는 거친 현악과 냉소적인 하프시코드의 음향 위에 몸부림치는 독주 바이올린으로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그로테스크하게 들려준다. '피아노와 현을 위한 협주곡'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피아노의 영롱한 음색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듯 환상적이다. '히에로니무스 보쉬 단편'은 이질적인 트롬본이 압도하면서 적막한 분위기를 이끈다. 반면에 '옛 풍의 모음곡'은 이들과 달리 바로크 음악을 재현한 밝은 분위기의 다중양식작품이다.

C8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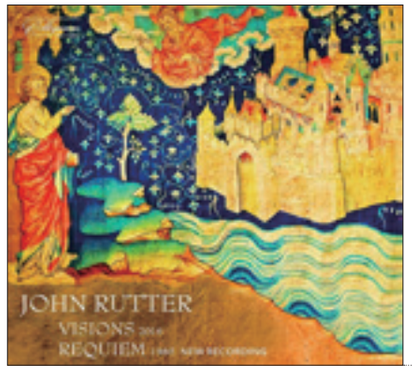
브람스: 독일 레퀴엠

헤간더(소프라노), 로렌츠(테너), 라이프치히 방송합창단과 교향악단, 헤르베르트 케겔(지휘)

천상의 축복과 같이 안락한 하모니로 영혼의 평온한 안식을 주는 명연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독일의 낭만 시대 합창곡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그런데 '레퀴엠'이라는 제목이 갖는 이미지와는 달리, 브람스의 작품 중에서도 오히려 밝은 쪽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주되고 있다. 하지만 철의 장막 뒤에서 펼쳐진 구 동독의 거장 헤르베르트 케겔의 연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죽은 자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슬픔을 가지고 이 작품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으며, 천상의 축복이 내리는 듯 더없이 풍부한 합창의 하모니에는 영혼에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바라는 예술가의 진심어린 마음이 담겨있다.

Collegium *www.collegium.co.uk*



COLCD 139

존 루터: 비전, 레퀴엠

템플 처치 소년 합창단, 캠브리지 싱어즈, 오로라 오케스트라, 존 루터(지휘)

2016년 신작 '비전'과 루터의 대표작 '레퀴엠'의 신녹음

영국합창의 거장 존 루터가 2006년에 '비전'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이 곡은 환상을 담은 네 개의 텍스트를 가사로 한다. 첫 곡은 예루살렘을 상상의 도시로 그린 중세 성가이며, 둘째 곡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 셋째는 시온의 멸망에 대한 비가, 넷째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이다. 그레고리안 찬트와 윌리엄 버드의 찬가부터 서정미 넘치는 멜로디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이 하나로 융화되어있으며, 독주 바이올린의 활약이 돋보인다. '레퀴엠'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득한 루터의 대표작으로, 2016년 신녹음이다.

Columna Música

www.columnamusica.com

콜룸나 무지카(COLUMNA MúSIC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레이블이다. 19~20세기에 탄생했지만 잊혀진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작곡가, 연주가, 성악가, 앙상블을 조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흔히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되는 기사나 특별 기고를 뜻하는 칼럼(Column)이란 말은 콜룸나(COLUMNA), 즉 '기둥'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이 레이블의 명칭대로 18~19세기의 작품을 발굴하고,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음악가들의 활발한 장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 스페인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를 비롯하여 스페인의 작곡가 바도, 그라나도스, 파야, 모란테, 몸포우, 에드아르드 톨드라, 알베니즈, 몽트살밧제 등의 작품을 조명하며, 세계 최초 레코딩도 진행하고 있다.

COLUMNA MÚSICA

1CM0104
베어만 · 크로머 · 베버: 클라리넷 5중주 모음집(II)
주제프 후스터(클라리넷), 글린카 현악 4중주
클라리넷과 현악4중주가 빚는 '우아한 경쾌함'
모차르트(1756~1791)의 클라리넷 5중주를 연상케 하는 하인리히 베어만(1784~1847)의 클라리넷 5중주로 시작하는 이 앨범의 분위기는 '우아한 경쾌함'이다. 크로머(1759~1831)와 베버(1786~1826)의 클라리넷 5중주 역시 마찬가지. 스페인 카스텔로 태생의 주제프 후스터는 관악 실내악의 명수로, 같은 레이블에서 모차르트 · 라이하 · 슈포어의 클라리넷 5중주를 발매했던 전력을 잇는 화려하고도 차분한 호흡과 매력이 잘 담겨 있다. 스페인과 러시아의 연주자들로 글린카 현악 4중주의 연주는 화려하고도 당당하다. 이들의 하모니는 화려하고도 아늑하며 편안하다.

1CM0140
보케리니: 기타 5중주 G.445 · G.446 · G.447
앙상블 알모디스, 루도비카 모스카(캐스터네츠)
보케리니 기타 5중주의 진수와 그 경쾌함 속으로!
1995년 기타리스트 호안 마티네즈가 창단한 앙상블 알모디스가 연주하는 보케리니(1743~1805)의 기타 5중주곡 G.445 · G.446 · G.447을 수록한 앨범이다(보케리니의 작품번호는 'G.'로 읽는다).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계의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는 보케리니의 무궁무진한 실내악곡들을 녹음해오고 있다. 기타 5중주는 기타와 현악 4중주가 함께 하는 편성으로, 연주자들은 원전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의 하모니와 녹음 음향은 맑고 윤택하다. G.447의 4악장 폴카에서는 캐스터네츠가 함께 하여 흥겨운 무도회장을 연상케 한다.

1CM0194
드뷔시 외 19~20세기 클라리넷 작품집
오나 카르도나(클라리넷), 티모시 리시모레(피아노)
19~20세기 주옥 같은 클라리넷 명곡들의 발견
1983년 태생의 오나 카르도나는 스페인의 미노르카 음악원과 카탈루냐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스페인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은 19~20세기 음악가 발굴에 주력하는 만큼 19세기 베버의 그랜드 듀오 콘체르토와 20세기에 탄생한 아르투르 벤야민의 '라벨의 묘지, 왈츠', 드뷔시의 '첫번째 광시곡', 알반 베르크의 '4개의 소품', 요제프 호로비츠의 소나타, 스페인 태생 미구엘 유스테의 '연습곡', 미가엘 카밀로의 독주 모음곡을 담았다. 유스테의 '연습곡'이야말로 보석과도 같은 곡과 연주자의 맑은 호흡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며, 녹음 역시 그 찰나를 맑고 순수한 음향으로 담고 있다.

1CM0197
베버 & 로시니: 클라리넷 작품
주제프 후스터(클라리넷), 이자벨 헤르난데스(피아노)
오페라적 선율과 전위적 실험을 담은 종합세트
클라리네티스트 주제프 후스터는 라틴아메리카계 출신의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의 간판스타로, 이 레이블에서 지속적인 독주 및 실내악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이반 뮐러 편곡)와 클라리넷 환상곡은 로시니의 재발견이자, 대발견이다. 스페인 작곡가 바타틀러(b.1977), 크루즈(b.1958), 메디나(b.1971) 등의 실험성 강한 곡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이 앨범(11개 트랙)은 로시니(1)의 유려하고 친숙한 선율을 시작으로 바타틀러(2~4) · 로시니(5) · 크루즈(6) · 코바치(7) · 메디나(8)를 지나, 베버(9~11)로 이어지며 오페라틱 낭만과 현대음악의 전위성을 맛볼 수 있다.

1CM0221
보케리니: 현악 4중주 Op.8(G.165~170)
아타리아 현악 4중주단
보케리니 현악 4중주의 '뿌리'와 '핵심'
원전에 충실한 사실주의적 연주와 음향을 느끼게 하는 이 앨범은 보케리니(1743~1805)의 현악 4중주 G.165 · G.166 · G167(CD1)과 G.168 · G.169 · G.170(CD2)을 두 장의 CD에 수록했다(보케리니의 작품번호는 'G.'로 읽는다). 1985년 창단된 아타리아 현악 4중주단은 모차르트 · 하이든 · 보케리니 등을 주요 레퍼토리로 하여 활약하고 있다.
원전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의 하모니와 음향은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 특유의 음향기술로 인해 더욱더 맑게 빛난다. 보케리니협회의 창단 멤버인 첼리스트 엘리자스 르 귄은 든든하고 풍성한 사운드로 통주저음을 맡으며 보케리니가 첼리스트였다는 것을 재고한다.

1CM0231
콜룸나 무지카 레이블의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콜렉션 'SONG TO REMEMBER'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소프라노), 라파엘 부르고스(지휘), 런던 신포니아, 제프리 파슨스(피아노) 외
20세기를 수놓은 소프라노의 향기
카탈라나의 민요로 시작되는 1번 트랙을 듣고 있으면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의 고향 스페인의 풍경이 펼쳐진다. EMI CLASSICS를 통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던 그녀의 노스탤지어를 달래주려는듯,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계의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의 앙헬레스 컬렉션 앨범이 나오고 있다. 이 음반은 1957년부터 1992년까지 녹음했던 20곡을 모은 앨범이다. 베를리오즈, 드보르자크, 라벨, 슈베르트, 레스피기를 비롯하여 오발레(브라질), 이라디에르(스페인), X.몽트살밧제(스페인)의 노래들, 그리고 스페인의 민요 등이 어우러지며 그녀의 목소리를 향한 향수를 자극한다.

1CM0235
주제프 후스터의 19~20세기 클라리넷 독주곡(II)
주제프 후스터(클라리넷), 이자벨 헤르난데스(피아노)
숨은 작곡가들과 그 매력을 발굴하는 마법의 클라리넷
클라리네티스트 주제프 후스터는 라틴아메리카계 출신의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의 간판스타로, 이 레이블에서 지속적인 독주 및 실내악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 슈만의 '환상 소곡'과 생상의 소나타 Op.67을 비롯하여, 19~20세기 곡들의 조명 역시 주된 목적인 레이블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칼리보다 · 루이스 · 카우자크 · 마르셀 오름 · 요제프 호로비츠 · 닐스 게이드의 곡들이 담겨 있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명료한 음색의 소유자 주제프 후스터, 그의 탄탄한 연주력과 유려한 호흡이 생소한 작곡가들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음반 특유의 진가와 매력이 있다.

1CM0252
콜룸나 무지카 레이블의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콜렉션 'Victoria from the heart'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소프라노), 라파엘 부르고스(지휘), 런던 심포니, 제라르 무어(피아노) 외
1951~1990년에 남긴 천상의 소리들만 담았다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는 20세기를 빛낸 10명의 소프라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EMI CLASSICS를 통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었다. 이 음반은 스페인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계 출신의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의 앙헬레스 컬렉션 앨범의 하나로, 전성기였던 1951년부터 1990년까지 녹음했던 슈베르트 · 포레 · 브람스 · 슈만 · 베토벤 등의 가곡, 푸치니 · 모차르트 · 베르디 · 구노 · 마스네 등의 오페라 아리아를 포함하여 총 22곡을 담고 있다.

1CM0258

보케리니: 현악 3중주 Op.34(G.101~103) Vol.1

히로 구로사키 · 리나 보네(바이올린), 호세추 오브레곤(첼로)

보케리니 현악 3중주의 음악적 뿌리를 캐다

안너 빌스마의 제자로 뛰어난 바로크 첼리스트인 호세추 오브레곤이 이끄는 라 리티라타 앙상블의 핵심 멤버인 히로 구로사키 · 리나 보네(바이올린), 그리고 호세추 오브레곤이 함께 한 보케리니(1743~1805)의 현악 3중주 Op.34(G.101~103), 3곡이 수록되었다. G.101과 G.103은 세계 최초 녹음이다. 원전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의 하모니와 음향은 맑고 윤택하다. 그리고 작곡가가 첼리스트였다는 사실을 겨냥이라도 한듯이 첼로가 빚는 통주저음에 음향의 손길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스피커를 가득 채우는 '풍성함'과 '차분함'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ICM0275

보케리니: 현악 3중주Op.34(G.104~106) Vol.2

히로 구로사키 · 리나 보네(바이올린), 호세추 오브레곤(첼로)

보케리니 현악 3중주의 음악적 뿌리를 캐다

안너 빌스마의 제자로 뛰어난 바로크 첼리스트인 호세추 오브레곤이 이끄는 라 리티라타 앙상블의 핵심 멤버인 히로 구로사키 · 리나 보네(바이올린), 그리고 호세추 오브레곤이 함께 한 보케리니(1743~1805)의 현악 3중주 Op.34(G.104~106), 3곡이 수록되었다. 모두 세계 최초 녹음. 같은 레이블에서 Op.34(G.101~103)을 담은 1집을 시작으로 보케리니에 집중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작곡가가 첼리스트였다는 사실을 겨냥이라도 한듯 첼로가 빚는 통주저음이 매력적인 울림을 자아낸다. 그래서 1집에 이어 스피커를 가득 채우는 '풍성함'과 '차분함'이 돋보이는 이번 앨범 역시 필청반으로 추천하고 싶다.

ICM0300

카잘스 · 브람스 · 모차르트 · 레스피기 등: 가곡 및 노래 모음집 'Pau & Vitoria'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소프라노), 카잘스(피아노 · 첼로) 외

앙헬레스의 목소리, 카잘스의 자작곡, 그 '보물'들을 담다

EMI CLASSICS를 통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를 향한 노스탤지어를 달래 주려는 듯,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계의 음악가들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의 앙헬레스 컬렉션 앨범이 나오고 있다. 1CD에는 1954~59년 녹음 리마스터링으로 앙헬레스의 브람스 · 모차르트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레스피기 · 파야 · 카잘스 등의 노래들과 카잘스의 첼로 연주를, 2CD에는 파블로 카살스(1876~1973)가 작곡한 14곡의 가곡을 부른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 출신 젊은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앨범이다.

Divine Art

www.divineartrecords.com

dda25068

스트라빈스키: 이탈리아 모음곡/ 드뷔시: 첼로 소나타/ 브람스: 첼로 소나타 2번

수잔 비어(첼로), 가렛 행콕(피아노)

고전을 꿈꿨던 시대전환기의 거장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걸작들

수잔 비어는 런던 필하모닉의 수석을 맡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여류 첼리스트이다. 그녀는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아 모음곡'과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2번'을 녹음했다. 이 세 작곡가의 이 작품들은 신고전주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과거의 음악을 모방함으로써, 드뷔시는 옛 프랑스 음악의 특징을 구현함으로써, 브람스는 옛 빈악파의 영광을 추억함으로써 말이다. 비어는 이 작품들의 극적 흐름을 훌륭히 구성하였으며, 피아노와 안정적인 이중주를 구축하고 있다.

Dynamic

www.dynamic.it

CDS 7712

슈베르트: 일곱 개의 서곡, 다섯 개의 미뉴엣, 다섯 개의 독일무곡 (부조니 편곡판)

마르코 빈첸치(피아노)

피아노 편곡의 귀재 부조니에 의해 편곡된 슈베르트 숨겨진 명곡들

20세기 초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명성이 높았던 페루치오 부조니는 작곡가로서 많은 오리지널 작품을 남겼지만, 오늘날에는 피아노 편곡이 자주 연주된다. 그는 원곡의 인상을 그대로 살리면서 피아니스틱하게 편곡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 레퍼토리로 삼고 있다. 이 음반은 그 중 슈베르트 편곡 전곡으로, 관현악곡인 일곱 개의 서곡들과 삼중주곡인 미뉴엣, 그리고 독일무곡을 수록했다. 완벽한 편곡과 부조니 음악연구소 소장인 마르코 빈첸치의 슈베르트적인 연주가 결합되어 본래 피아노 소품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CDS 7774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Op.1 (슈만 편곡 버전)

마리스텔라 파투치(바이올린), 마리오 파투치(피아노)

파가니니와 슈만, 그 날카로움과 포용력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슈만은 1856년 숨을 거두기 전이던 1855년에 파가니니의 독주 바이올린 위한 24개의 카프리스에 피아노 반주를 붙였다. 결과적으로 이 곡은 슈만의 마지막 작업이 된 셈이다. 1987년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스텔라 파투치가 원곡이 지닌 완성도를 살리고 있으며, 마리오 파투치의 피아노는 바이올린의 날카로움에 부드럽게 융화되어 온화하게 다가온다. 마리스텔라 파투치는 1687년 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용한다. 24곡이 고른 음향감으로 잘 감싸져 있다. 예리함과 원만함이 공존하는 맛이 있는 음반!

CDS 7775

타르티니: 바이올린 소나타 8번 · 45번 · 50번 · 52번 · 40

번츠르코미르 쉬슈코비츠(바이올린), 루카 페리니(하프시코드)

타르티니가 바이올린에 녹여넣은 매력이 보이다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형식과 양식적 면에서 우아한 멜로디와 간결한 화성에 독특하고 유화한 분위기가 있고 신선한 매력이 넘친다. 음반에 수록된 곡명 뒤에 붙은 'Br'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환원하자면 소나타 8번(g2), 45번(F3), 50번(G12), 52번(D17), 40번(A7)을 뜻한다. 이 앨범들에는 이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츠르코미르 쉬슈코비츠는 다이나믹 레이블에서 4종 이상의 타르티니 앨범을 발매한 타르티니 스페셜리스트. '악마의 트릴'로만 잘 알려져 있는 타르티니의 음악적 면모를 다양하게 살펴보기에 아주 적합한 음반이다.

CDS 7782

카발리: 성모의 저녁기도, 마리아 안티폰과 소나타

크레마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합창단, 라 피파레스카, 브루노 지니(지휘)

몬테베르디의 걸작에 버금가는 카발리의 '저녁 기도'의 재구성

프란체스코 카발리(1602–1676)는 베네치아의 작곡가로, 14세에 가수로 성마가 바실리카에 입성하여 몬테베르디의 지도를 받았다. 그 후 오르가니스트를 거쳐 64세에 음악감독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오페라 작곡가로서 새로운 작곡법을 시도하며 대중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교회음악가로서 남긴 중요한 성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견지했다. 이 음반은 만년의 작품인 '성모의 저녁기도'와 54세 때의 작품인 '마리아 안티폰과 소나타'를 교대로 수록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녹음되었다. 이로써 몬테베르디의 '저녁기도'에 버금가는 대작으로 완성시켰다.

Gramola www.gramola.at

99097
자캥 저택에서 열린 음악의 밤
타이스-에뢰드(소프라노), 쿠차로바(메조소프라노), 아드리안 에뢰드(베이스), 칼무스 콘소트

자캥의 하우스 콘서트를 재현한 즐거운 고전음악의 한 때
빈 대학 교수였던 니콜라우스 자캥은, 둘째 아들 고트프리트는 뛰어난 성악가로, 딸 프란치스카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로 키웠다. 이들은 당시 빈 음악계에 잘 알려진 인물들로, 모차르트는 고트프리트를 위해 작곡을 했으며, 프란치스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또한 자캥의 저택에서는 열렸던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를 비롯하여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완성한 것으로 잘 알려진 쥐스마이어, 호프마이스터, 슈타틀러, 파이시엘로 등 당대 이름난 음악가들이 모여들었다. 이 음반은 당시의 하우스 콘서트를 재현하여 고전음악의 즐거움을 전달한다.

99124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1번/ 보케리니: 기타 오중주 '판당고' 등
시몬 셈브리(기타), 파리시 오중주단

이탈리아 고전을 대표하는 두 곡의 기타 음악
이국적인 문화를 간직한 몰타 출신의 시몬 셈브리는 세계적인 기타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파리시 사중주단과 함께 이탈리아 기타음악의 거장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과 보케리니의 유명한 오중주곡 '판당고'를 연주했다. 파리시 현악사중주단의 우아하고 편안한 연주와 셈브리의 선명한 음색은 대조적이면서도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 셈브리의 손끝에서 나오는 감성적인 선율과 유쾌한 리듬도 이 두 작품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린다. 대중음악을 기반에 두고 있는 마르셀리의 '나스카'는 황야에서 펼쳐지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

99126
피아노 포르테 – 넥스트 제너레이션
루카시 클란스키, 페테르 나겔, 필리프 란키, 팀 얀차르, 율리아 코추반(피아노)

차세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피아노 레퍼토리
오스트리아 은행이 후원하는 다섯 명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모였다. 이들은 연주와 콩쿠르를 통해 인정받은 실력파 연주자들로, 도전적인 프로그램만으로도 들어볼 가치가 충분한 앨범이다. 쇼팽의 '발라드 4번'을 비롯하여 야나체크의 명곡들, 바르톡의 '소나티나' 등 개성적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또한 루토스와프스키의 초기작 '소나타'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려한 화음을 가진 매력적인 작품이며, 메시앙의 '아기예수의 입맞춤'은 독특한 색채감으로 신비롭다. 피아니스트들에게 인기가 높은 칼 바인의 '다섯 개의 바가텔'도 놓칠 수 없다.

99110 [SACD]
슈베르트: 피아노 삼중주 1~2번, 노투르노, 소나타악장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다비드 게링가스(첼로), 미하엘 코어슈티크(피아노)

최상의 앙상블과 최고의 거장이 만드는 완벽한 균형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이른베르거가 슈베르트의 사랑스러운 두 곡의 피아노 삼중주곡을 녹음했다. 이 곡들은 슈베르트의 만년 작품으로, 1번은 40분, 2번은 무려 50분이 넘게 소요되는 거대한 규모의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실내악을 위한 교향곡이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음향과 조직적인 구성력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이른베르거의 연주에는 청년 슈베르트의 열정이 담겨있으며, 코어슈티크와의 앙상블은 이미 적지 않은 음반을 통해 최상의 하모니임을 입증했다. 또한 첼로의 거장 게링가스가 합류하여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99115
라틴 아메리카의 피아노 음악
파블로 로하스(피아노)

라틴아메리카의 댄스 리듬에 열정이 가득한 아름다운 피아노 소품들
콜롬비아 태생의 파블로 로하스는 빈의 '음악과 시각예술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모교에서 가르치면서 두 나라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속음악과 작곡가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독보적인 뛰어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 음반은 라틴아메리카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각국의 대표 작곡가들의 아름다운 소품들을 모았다. 탱고의 전설 피아졸라, 남미의 거장 히나스테라,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 과스타비노, 브라질의 음악적 정신 나사레트, 콜롬비아와 쿠바 등 댄스 리듬에 태양빛 가득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

99120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3번, 가센하우어 Op. 11, 변주곡 Op. 44
트리오판베토벤

초기 작품에서 듣는 패기 가득한 젊은 베토벤 사운드
'트리오판베토벤'은 베토벤을 전문적으로 연주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오늘날 가장 모범적인 베토벤 해석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20대에 작곡된 초기곡들로, 기념비적인 'Op. 1'에 포함된 '삼중주 3번'과 네 번째 삼중주곡인 '가센하우어'(유행가), 그리고 작품번호는 늦지만 이들보다 먼저 작곡된 '변주곡'을 수록했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과감한 다이나믹과 자유로운 리듬의 변화에 젊은 베토벤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어있다. 트리오판베토벤은 이를 놓치지 않고 패기 가득한 베토벤 사운드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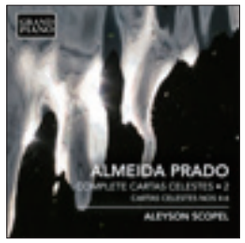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31
레오폴트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25번 · 26번 · 27번 · 28번
켐프 잉글리시(피아노포르테)

경쾌하고 명쾌하면서 지적인 연주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피아노곡을 발굴하여 청량한 음향과 함께 음반을 내놓고 있는 그랜드피아노 레이블에서 출시된 음반으로, 레오폴트 코젤루흐(1747~1818)의 피아노 소나타 25번부터 28번이 담겨 있다. 코젤루흐는 빈에서 음악인생을 보냈으며, 잘츠부르크 궁정으로부터 모차르트의 후임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크리스토프 호그우드와 함께 작업하며 잔뼈가 굵은 켐프 잉글리시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과 탐구심을 1795년 산 피아노포르테에 녹여 넣는다. 절제된 울림과 지적인 면모를 물씬 풍기는 음반으로, 모차르트를 듣고 있는 듯하다.

GP708
카프랄로바: '열정 소나타' 등 피아노 작품 전곡
기오르기오 코우클(피아노)
요절한 음악 천재의 영혼의 화려한 부활
체코 작곡가 비테즈슬라바 카프랄로바는 탈리히와 마르티누의 제자였으며, 유명한 화가인 알폰스 무하의 며느리였다. 섬세한 음악 언어로 주목받는 신예였지만 겨우 25세의 나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잊히고 말았다. 체코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인 코우클은 16세였던 1931년부터 세상을 떠난 1940년까지 10년간 작곡된 그녀의 피아노 작품들을 발굴하여 전곡을 녹음했다. 카프랄로바의 음악은 아기자기한 음향 속에 이야깃거리를 가득 담은 듯한 낭만적인 서정성이 진하게 배어있어, 현대적인 표현마저도 가슴깊이 전달하는 매력이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10
프라도: 카르타스 셀레스테스 4~6번
알레이손 스코펠(피아노)
피아노로 펼쳐지는 우주와 별들의 환상적인 리듬과 사운드
브라질 작곡가 알메이다 프라도는 파리에서 불랑제와 메시앙을 사사했으며, 브라질의 민속적인 음악을 적용하기보다는 음향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탐구하는 데에 주력했다. 특히 별자리와 별들을 주제로 하는 '천체 목록' 시리즈는 기념비적이다. 열여덟 곡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는 신비한 화음과 독특한 공명으로 흔히 들어볼 수 없는 환상적인 소리의 공간을 만든다. 이 음반에 수록된 4번은 해왕성, 명왕성, 게자리, 플레이아데스, 블랙홀 등, 5번은 목성, 토성, 사자자리, 큰곰자리, 6번은 지구, 달, 처녀자리 등 별들의 노래를 들려준다.

GP741
글린카: 피아노 전곡 1집 – 변주곡
잉가 피올리아(피아노)
고전을 꿈꾸는 글린카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있는 모범적인 변주곡
러시아 음악은 글린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린카는 러시아의 토속적 이미지와 서유럽의 음악적 형식을 완벽하게 결합한 작곡가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음반에 수록된 아홉 곡의 변주곡은 이러한 그의 음악세계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오리지널 주제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케루비니, 도니체티, 벨리니의 오페라에서도 주제를 가져왔으며, 러시아 민요 '얕은 계곡에서'와 알라비에프의 노래도 주제가 되었다. 글린카는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멜로디를 꾸밈없이 솔직한 스타일로 풀어내어 고전을 꿈꾸는 그의 열망을 드러낸다.

LPO www.lpo.org.uk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0091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관악기의 교향곡, 오르페우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스트라빈스키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는 한 장의 음악
스트라빈스키는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자주 완벽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음악의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 음반에서는 그 중 세 가지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첫째는 러시아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리듬 위주의 음향적 접근을 시도하는 초기로, 초기 3대 발레 중 첫 곡인 '페트루슈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초기 신고전주의로, '관악기의 교향곡'에서 관현악을 다루는 자신의 양식을 확립했다. 셋째는 고전적 테두리에서 자신의 길을 정착시킨 20세기 중엽의 모습으로, '오르페우스'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LPO–0093
베토벤: 교향곡 1번, 교향곡 4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지휘)
수석지휘자 시절 엄선된 음원 중 하나인 2004년 실황 녹음
쿠르트 마주어는 25년간 런던 필하모닉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런던과 세계무대에서 연주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런던 필하모닉의 수석지휘자로 있으면서 노년의 완숙한 경지의 예술적 역량을 아낌없이 쏟았다. 베토벤의 교향곡 1번과 4번을 수록한 이 음반은 이 시기에 속하는 2004년에 있었던 실황 녹음으로, 그를 기념하며 엄선된 음원 중 하나이다. 마주어는 '교향곡 1번'에서 젊은 베토벤이 재치 있게 넣은 다양한 음악적 제스처를 전면에 부각시키며 한 편의 희극을 만들며, '교향곡 4번'은 이 곡의 영웅적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MD&G www.md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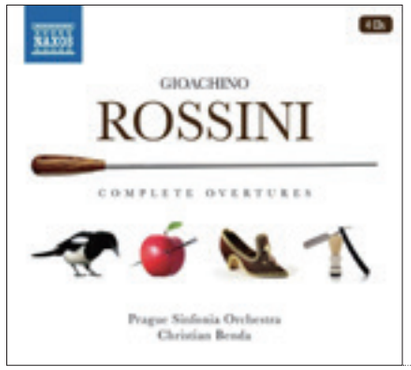
DG

3081932–2
바흐: 크리스마스 칸타타/ 비발디: '사계' 중 '겨울', 크리스마스 캐롤 등
안드레아스 블라우 외, 뵌 마티아센(타악)
스피커를 가득 울리는 플루트족의 크리스마스 대향연!
14베를리너 플뢰티스텐은 베를린에 기반을 둔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들이 모여 1996년에 결성한 앙상블이다. 베를린 필의 수석 안드레아스 블라우가 예술감독이며, 피콜로부터 콘트라베이스플루트로 구성된 플루트오케스트라이다. 수록된 비발디 '사계' 중 '겨울'을 들어보면 입체감 있는 구성과 연주가 새로운 느낌으로 자아낸다. 엠데게 레이블에서 이미 3~4종의 음반을 발매한 바 있는 이들은 바흐의 크리마스 오라토리오, 생상의 '오라토리오 드 노엘', 캐롤 모음곡 등 총 14곡을 들려준다. 플루트 애호가의 필청반이며 오디오파일용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9041936-6 [SACD]
쇼팽: 전주곡 Op.28, 소나타 3번 Op.58 외
저우 위보(피아노)
중국이 낳은 피아노의 젊은 여왕과 그녀의 쇼팽
쇼팽의 전주곡 Op.28과 피아노 소나타 3번 Op.58, 중국 작곡가 핑가오(b.1970)가 작곡한 '밤의 골목'이 수록된 음반이다. 피아니스트 저우 위보는 중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수학 후, 2010년부터 중국 지메이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우 위보가 엠데게(MDG) 레이블에서 처음으로 발매하는 음반으로 본 레이블이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 방식은 그녀가 연주하는 쇼팽에 청량한 울림과 화려함을 더한다. 저우 위보의 숨소리까지 잡아내는 레코딩은 마치 실제 연주환경에 청취자가 위치해있는 듯한 기분까지 제공한다.

9371977-6 [SACD]
베토벤: 교향곡 2번, 에그몬트 서곡 외
슈테판 블루니어(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음향으로 승부 건 베토벤 교향곡 2번과 서곡들
1806년에 창단된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와 2008년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슈테판 블루니어는 MDG 레이블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1번 · 3번 · 5번 · 6번 · 8번 · 9번을 녹음해왔다. 이들의 이번 선택은 교향곡 2번. 녹음 장소인 본 베토벤홀의 음향과 MDG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2+2+2 Recoding)의 조화는 음악에 청량한 울림과 화려함을 더하며 교향곡 2번을 희망과 밝은 분위기로 채색한다. 별미 격인 '아테네의 폐허' '명명식'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코리올란 서곡' '에그몬트 서곡'은 본문인 교향곡 2번을 위협할 정도로 연주나 음향 모두 맛깔 나는 부록이다.

Naxos www.naxos.com



8.504048
로시니: 오페라 서곡 전집 세트
프라하 필하모닉 코러스, 프라하 신포니아 오케스트라(연주), 크리스티안 벤다(지휘)
로시니 오페라 서곡을 한자리에!
크리스티안 벤다가 이끄는 프라하 신포니아 오케스트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로시니의 서곡 전곡 시리즈를 선보였다.
우리에게 낯익은 '도둑까치 서곡', '윌리엄 텔 서곡',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에서 부터 다소 생소한 '마틸데 샤브란 서곡' 등에 이르기까지 총 4장에 수록된 로시니 오페라 서곡 전곡은 로시니 특유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재치로 가득하다. 오케스트라 피트의 음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악단의 연주는 경쾌하고 말쑥하다. 오페라 극장에서 로시니의 작품을 만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8.555398
슈포어: 교향곡 4번(소리의 봉헌), 파우스트 서곡 & 예손다 서곡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은은하고 우아한 소리의 향연
슈포어의 교향곡은 그의 이상인 모차르트 이래의 고전적인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시에 낭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표제가 붙어 있는 작품은 전통과 변용이라는 슈포어 본연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낭만주의 표제음악을 예시하는 교향곡 4번은 '소리의 봉헌'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칼 파이퍼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은은하고 우아한 분위기, 오페라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교향곡 4번은 봄날 새소리를 닮은 1악장의 플루트 선율 등 '소리의 향연'이라 할 만큼 매력적인 요소로 가득하다.

8.559790
번스타인: 교향곡 1번(예레미야) & 2번(불안의 시대)
제니퍼 존슨 카노(메조소프라노), 장-이브 티보데(피아노),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솝(지휘)
명확하고 말끔한 어조로 풀어낸 신앙에 대한 번스타인의 성찰
번스타인은 모두 3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세 작품 모두 신앙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본 음반에 수록된 교향곡 1번('예레미야')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벨론 유수를 모티브로 신앙의 상실을 다루었으며, 교향곡 2번('불안의 시대')은 W.H. 오든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지난한 여정을 그렸다. 마린 알솝은 신앙에 대한 번스타인의 성찰을 명확하고 말끔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예리함과 날렵함을 뽐내는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는 음반의 백미이다. 과하지 않은 격정, 풍부한 음향 모두 만족스럽다.

8.572445
줄리아니: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작품 1집
제프리 맥패든 & 마이클 코크(기타)
두 대의 기타로 재탄생한 로시니의 오페라 서곡의 매력
이탈리아 출신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마우로 줄리아니는 빈에서 자신의 이름을 인정받은 후 이탈리아로 돌아와 로시니, 파가니니와 교분을 쌓았다. 줄리아니는 특히, 로시니의 오페라 서곡('도둑까치 서곡',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라 체네렌톨라 서곡', '코린트 포위 서곡')을 두 대의 기타 버전으로 편곡 했는데, 원곡의 매력과 줄리아니의 역량이 매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협주적 대변주곡'과 '세 개의 협주적 폴로네이즈'는 기타의 지평을 넓힌 줄리아니의 역작으로서 뛰어난 기교와 기타만의 질감과 색채를 뽐낸다.

8.573343
보리스 티쉬첸코: 교향곡 8번 외
오즈마노프 칭기스(바이올린), 밀라 슈키르틸(메조소프라노), 니콜라이 마자라(피아노), 상트 페테스부르트 국립 오케스트라, 유리 세로프(지휘)
전통을 대하는 티쉬첸코의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
러시아 전통 음악에 대한 쇼스타코비치의 시각은 티쉬첸코의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티쉬첸코과 쇼스타코비치의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은 본 음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미완성, D.759)'과 짝을 이루어 연주되도록 지시한 '교향곡 8번'은 타쉬첸코 생애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서 전통을 대하는 티쉬첸코의 방식이 집약된 수작이다. 쇼스타코비치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가곡을 녹음한 밀라 슈키르틸은 짧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감상을 적극 권한다. ***'교향곡 8번'(5-7번 트랙),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시에 붙인 세 개의 노래(첼버 오케스트라 버전, 리제지노프 편곡)'(8-10번 트랙) 세계 최초녹음.**

8.573424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 오르간 소나타
이언 퀸(오르간)
생동감 넘치는 선율과 산뜻한 음향의 균형
C.P.E 바흐는 클라비코드를 좋아하고 이를 능숙하게 다루었던 모습답게 건반악기 작품에 대표작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는 클라비코드에 비해 수는 적지만 오르간 작품들도 다수 남겼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프리드리히 2세의 동생인 안나 아말리아 공주를 위해 작곡된 것이다. 이 작품들은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뛰어넘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선율과 산뜻한 음향의 균형이 인상적이다. 오르간 작품들 역시 C.P.E 바흐만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으며, 이언 퀸의 깔끔한 해석은 작품의 신선한 매력을 북돋고 있다.

8.573545

라벨: 관현악 작품 4집(다프니스와 클로에 3막 전곡 & 바다 위의 작은 배 –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스피리토(합창), 리용 국립 오케스트라, 레너트 슬래트킨(지휘)

폭넓은 시야와 명확한 구도로 표현된 '거대한 프레스코화'

레너드 슬래트킨과 리용 국립 오케스트라가 선보이고 있는 라벨 관현악 작품 시리즈 네 번째 음반에는 라벨 관현악 작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다프니스와 클로에' 전곡과 함께 "거울" 세 번째 곡인 '바다 위의 작은 배'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이 수록되었다. 이들 작품(특히, '다프니스와 클로에')을 대하는 레너드 슬래트킨의 폭 넓은 시야와 명확한 구도를 통해 '거대한 프레스코화' 속에 배치된 각각의 요소들은 짜임새 있게 표현되고 있다. 매우 인상 깊은 결과물로서 녹음 상태 역시 만족스럽다. 감상을 적극 권한다.

8.573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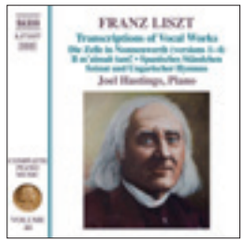
카탈로니아 작곡가들의 관악기를 위한 작품집

바르셀로나 심포닉 밴드, 살바도르 브로톤스(지휘)

20세기 카탈로니아 음악을 대표하는 세 작품

20세기 카탈로니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마누엘 올트라, 훌리 가레타, 호안 루이즈 모랄레다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이다. 작품들은 9대의 색소폰을 비롯한 목관 · 금관악기와 타악기, 카탈로니아 전통 악단(코블라)을 구성하고 있는 악기(티블레, 테노라, 플라비올)로 연주되고 있다. 올트라의 교향시 '모닥불'은 카탈로니아의 전통을, 가레타의 '엠포르다네사 모음곡'과 마르토렐의 소설을 모티브로 작곡된 모랄레다의 '백기사 모음곡'은 영웅적인 스케일 속에 정열과 지역 색을 짙게 내뿜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인의 이미지가 집약된 작품들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57

리스트: 피아노 작품 44집

조엘 헤이스팅스(피아노)

투명하고 단아한 터치로 리스트를 노래함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44집에는 성악 작품들을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쇼팽의 "6개의 폴란드 노래" 중 '나의 기쁨', '잊힌 로망스', '그는 나를 너무 사랑 했어', '너를 사랑해' 등의 작품들은 리스트의 작곡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리스트 인생 여정의 여러 순간들이 담겨있기도 하다. 본 음반의 가장 큰 묘미는 '노넨베르트의 작은방' 4개 버전을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음반 녹음 후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조엘 헤이스팅스의 투명하고 단아한 터치는 마지막 트랙이 끝난 후 뭉클한 여운을 남긴다.

8.573564

솔레르: 건반소나타(63–66번)

스타니슬라프 흐리스텐코(피아노)

스카를라티를 연상시키는 솔레르의 건반소나타 작품

스페인 카탈로니아 출신의 작곡가 안토니오 솔레르는 엘에스코리알궁의 마에스트로 디 카필라(카펠마이스터)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봉직했는데, 카를로스 3세의 아들인 돈 가브리엘 왕자를 위해 다수의 건반소나타를 작곡했다. 내한연주로 익숙한 스타니슬라프 흐리스텐코는 제59회 마리아 카날스 국제음악콩쿠르의 우승자로서 관례에 따라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를 녹음했다. 그의 매끄럽고 또랑또랑한 터치는 스카를라티를 연상시키는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의 매력을 훌륭하게 드러내고 있다. 말끔한 꾸밈음과 순간적인 비약과 수렴, 선명한 음향이 인상 깊다.

8.573599

맥스웰 데이비스: 바이올린 작품집

두치오 체칸티(바이올린), 비토리오 체칸티(첼로), 마테오 포시 & 브루노 카니노(피아노)

실내악 작품에 담긴 맥스웰 데이비스의 인상과 서정

10개에 이르는 '낙소스 현악 4중주'(8.505225, 5CD)가 보여주듯 실내악은 피터 맥스웰 데이비스 인생 후반기 작품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본 음반에는 일생 마지막 성찰이 담겨 있는 단악장의 '바이올린 독주 소나타'를 비롯해 '낙소스 실내악' 7번과 닿아있는 '바이올린 소나타', 노르웨이 민속 선율을 연상시키는 '피아노 삼중주(페리 아일의 항해)' 등 인상과 서정이 두드러지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체칸티 형제의 훌륭한 연주는 작곡가와의 교분에 어울릴법하다. 맥스웰 데이비스 실내악 작품의 입문으로도 적합한 음반인 것 같다. ***'바이올린 독주 소나타(1번 트랙)', '두 명의 바이올린 연주자(바이올린과 피아노 편곡 버전, 2번 트랙)', '바이올린 소나타(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602

라몬 파우스: 비올라 작품집

유발 곰틀리보비치(비올라), 라켈 카스트로(바이올린),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즈(피아노), ESMUC 첨버 콰이어, 카탈로니아 첨버 오케스트라, 호안 파미에즈(지휘)

밀고 당기기, 어울림과 삐걱거림이 빚는 색다른 음향

본 음반에 수록된 세 작품 중 '숲의 일몰'은 유발 곰틀리보비치와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즈의 만남을 위해 라몬 파우스가 특별히 작곡한 작품으로서 비올라와 피아노의 밀고 당기기 와중에 탄생한 다양한 인상을 담고 있다. 비올라와 피아노는 서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기도, 때론 무관심 한 듯 외면하기도 하는 어울림과 삐걱거림을 반복하며 색다른 음향을 빚어낸다. '코발트블루, 이동 중에', '최초의 엘레지, 표류'의 드라마적인 전개는 '숲의 일몰'과는 비슷한 듯 색다른 매력이 있다. 라몬 파우스 음악어법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8.573605

도니제티 & 마이어: 미사 글로리아 & 크레도 D장조

시리-캐롤린 손힐 & 마리-소피 폴락(소프라노), 마리-상드 파펜마이어(알토), 마크 아들러(테너), 마틴 베르너(베이스), 시몬 마이어 콰이어 & 바이에른 주립 오페라 합창단, 바수스 콘체르토, 프란츠 하우크(지휘)

도니제티와 마이어의 결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작품

도니제티는 모두 150여곡에 이르는 종교음악 작품을 남겼다. 그는 스승인 마이어의 지원 아래 1822년까지 종교음악을 집중적으로 작곡하다가 이후 오페라로 선회했지만, 이후에도 종교음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도니제티는 이전에 작곡한 종교음악 작품들을 발췌 · 배열하는 과정을 거쳐 미사곡을 완성하기도 했다. 프란츠 하우크는 이에 착안해 '미사 글로리아'등 도니제티의 작품들과 마이어의 '상투스'와 '아뉴스 데이'를 결합해 새로운 미사곡을 탄생시켰다. 연주시간 1시간 27분에 이르는 대곡은 종교적인 색채를 머금은 하나의 오페라라 할 만 하다.

8.573666

쇼스타코비치: 피아노협주곡 1 & 2번, 현악사중주 8번(피아노 편곡 버전)

보리스 길트버그(피아노), 리스 오언스(트럼펫),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실리 페트렌코(지휘)

반향을 일으킨 연주자들의 만남, 놓칠 수 없는 연주

라흐마니노프의 '회화적 연습곡'과 '악흥의 순간'(8.573469)으로 호평(그라모폰 이달의 음반, 2016년 6월)을 받았던 보리스 길트버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실리 페트렌코와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담긴 음반이다. 다채롭고 입체적인 길트버그의 터치와 세밀하고 군더더기 없는 페트렌코의 해석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여운을 달래줄 만하다. 유족의 양해를 받아 길트버그가 직접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2번 3악장'과 '현악사중주 8번'은 놓칠 없는 부분이다.

***'현악사중주 2번 3악장'(피아노 편곡 버전, 5번 트랙) '현악사중주 8번'(피아노 편곡 버전, 9–1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678

게라 필사본에 수록된 17세기 스페인 세속성악곡 4집

메르세데스 에르난데즈(소프라노), 프란치스코 페르난데즈-루에다(테너), 예차벨 아리아스 페르난데스(소프라노), 아르스 아틀란티카

우아한 하프 선율, 청아한 음성으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찬미함

17세기 후반 마드리드 왕궁에서 활동한 호세 미구엘 데 게라는 스페인 세속 성악곡(인간의 선율) 100여 편을 필사본으로 남겼다. '게라 필사본'으로 불리는 이 악보에는 후안 히달고, 호세 마린, 후안 데 나바스, 무명의 작곡가의 작품 등 스페인 바로크 음악의 귀중한 유산이 담겨 있다. 후안 히달고와 호세 마린 작품의 비중이 큰 만큼 4집 역시 이들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로잡힌 마음'(15번 트랙)등 사랑과 아름다움 등을 찬미하는 스페인 바로크 하프(arpa de dos órdenes)의 우아한 선율과 청아한 음성은 맑고 순수하다.

8.573687

리샤르 뒤뷔뇽: 비밀 교향곡(발췌), 세 폭의 그림, 살리나스의 꿈

노라 규비슈(메조소프라노), 토마 돌리(바리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ONF) & ONF 솔로이스츠, 파비앵 가벨 & 로랑 프티지라르 & 데보라 월드먼(지휘)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 소통의 가능성을 극대화한 작품

리샤르 뒤비뇽은 오늘날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곡가 중 한사람이다. 80여 곡에 이르는 작품에 비해 음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각 악장마다 타로 카드의 상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비밀 교향곡', 스페파니 옴의 텍스트를 사용한 '세 폭의 그림'과 '살리나스의 꿈'은 프랑스 특유의 우아하고 투명한 색채와 독일 음악의 구조와 리듬을 결합한 작품들이다. '세 폭의 그림'과 '살리나스의 꿈'은 동년배 작곡가인 에릭 탕귀의 작품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세 폭의 그림'(6–8번 트랙), '살리나스의 꿈'(9–13번 트랙)세계 최초 녹음.**

8.573748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소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이탈리아 스비체라 오케스트라, 다미안 아이오리오(지휘)

소편성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색채 속에 담긴 다양한 어법

카셀라가 딸 풀비아를 위해 작곡한 '풀비아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말리피에가 아킬레 리카르디의 '색채의 극장(Teatro del colore)' 공연을 위해 작곡한 '상상의 오리엔트', 도나토니 자신이 '신고전주의로 약간 치우친 쇤베르크의 작품'이라고 평한 '무지카', 베토벤과 바흐에 대한 게디니의 헌사, '콘체르토 그로소'가 수록된 음반이다. 수록 작품들에는 새로운 사조와 소통하며 고전을 재해석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갔던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밝고 화려한 색채, 소편성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매력이 인상 깊다. ***'콘체르토 그로소'(15–19번 트랙), '상상의 오리엔트'(20–22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59

셀소 가리도 – 레카: 관현악 작품집

노르웨지언 라디오 오케스트라 & 포츠 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구엘 아르트–베도야(지휘)

안데스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세련된 결합

오늘날 중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한사람인 페루 출신 작곡가 셀소 가리도–레카의 90세 생일을 맞이해 그의 작품 세계를 음반 한 장에 담았다. '안데스 민속 무곡집'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녹음된 네 작품에는 음렬주의, 안데스 산맥의 전통 음악, '칠레의 새로운 노래 운동'으로부터 받은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다. 《노자》 첫 문장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찬사 II'는 작품의 주제도 이채롭지만, 아방가르드적인 색채를 세련되게 구사하고 있어 감탄을 자아낸다. 안데스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결합이 선사하는 색다른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음반!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8343

스페인 기타 음악 걸작선

노르베르트 크라프트, 유르겐 로스트 외(기타)

스페인 기타 음악의 정수를 담은 결정반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기타 음악의 보고인 스페인의 기타 작품들을 녹음해왔다. 본 음반은 그 중에서도 걸작만을 가린 결정반이다. 로드리고, 알베니즈, 타레가, 그라나도스, 파야, 소르 등 작곡가뿐만 아니라 노르베르트 크라프트, 유르겐 & 모니카 로스트, 시미욘 시모프 등 연주자의 면면 모두 음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만 하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스페인 모음곡 1번 중 아스투리아스', '로망스(금지된 사랑)' 등 1시간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스페인 기타 음악과 함께 재충전 하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만한 음반이다.

8.579006

그리고리 스미르노프: 다우슨 가곡 & 샤콘느

마틴 바카리(테너), 아드리안 다우노프(첼로), 콘스탄틴 발리아나토스(피아노)

어네스트 다우슨, 음악을 만나다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 어니스트 다우슨의 이름은 다소 낯설지 모르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술과 장미의 날들' 등 그의 시에서 따온 문구들은 너무나도 익숙하다. 프로코피에프 국제 콩쿠르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탱글우드 페스티벌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예 작곡가 그리고리 스미르노프는 사랑의 행로를 탐미적으로 노래한 다우슨의 시를 모티브로 12개의 가곡을 작곡했다. 난해하지 않은 선율과 연기가 흩날리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는 마틴 바카리의 호소력 짙은 음성과 더불어 다우슨의 시구를 오롯이 담고 있다. 감상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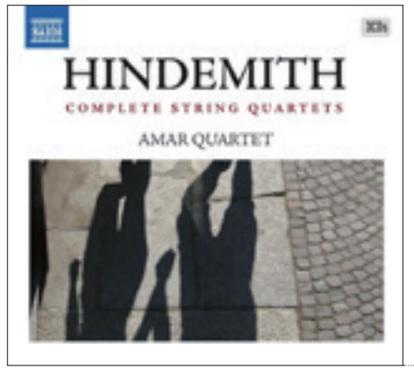
8.579010

힌데미트: 클라리넷 협주곡, 얀 판 더 로스트: 클라리넷 협주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에디 바누스수이즈(클라리넷), 센트럴 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르히오 로살레스(지휘)

클라리넷의 눈부신 스펙트럼

클라리넷의 눈부신 스펙트럼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힌테미트가 베니 굿맨의 의뢰를 받아 작곡한 클라리넷 협주곡에서 클라리넷은 음색과 리듬, 오케스트라와의 독특한 하모니를 선보인다. 얀 판 더 로스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1악장은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와의 조화를, 2악장은 클라리넷의 화려한 면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클라리넷이 비약을 멈추고 피아니시모로 수렴하는 마지막 부분은 악기에 대한 작곡가의 각별한 애정이 표현되어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야심작, '로망스'(op.27)의 우아함으로 음반은 화룡점정 한다.



8.503290 [3CDs]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집 세트

아마르 사중주단

20세기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 작품 중 하나인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집 세트

힌데미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아마르 사중주단은 힌데미트가 결성하고 비올라 주자로 활동했던 같은 이름의 현악사중주단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들이 녹음한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곡은 낙소스 레이블에서 3장의 음반으로 출시되어 호평을 받았다. 본 음반은 이전에 출시된 3장의 음반을 하나의 세트로 묶은 것이다. 실용음악을 향한 힌데미트 발걸음을 일별하는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 작품 중 하나인 힌데미트 현악사중주 전곡을 하나의 세트로 소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소장과 감상을 적극 권한다.

8.555527

슈포어: 교향곡 7번('인생의 성과 속') & 교향곡 8번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전통과 혁신, 슈포어 교향곡의 두 가지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들

'인생의 성과 속'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슈포어 '교향곡 7번'은 교향시를 떠오르게 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신성'을 상징하는 11개 악기, '세속'을 상징하는 오케스트라 전체 악기의 구도 모두 슈포어 교향곡의 대담하고도 혁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에 비해 '교향곡 8번'은 교향곡의 전형적인 형식미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두 작품은 전통과 혁신 사이에 위치한 슈포어 교향곡의 두 가지 전형이자 슈포어 자신의 모습이라 할 만 하다.

8.571374

프리커: 현악사중주 1 & 2 & 3번, 아다지오와 스케르초

빌러즈 현악사중주단

프리커의 음악적 고뇌가 담긴 현악사중주 작품들

프리커는 1949년 '교향곡 1번'으로 쿠세비츠키상을 받게 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교향곡 1번'을 예시하는 단악장의 '현악사중주 1번'은 에드윈 에반스상을 겨냥해 작곡되었는데, 자신의 음악적 영감과 작곡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실험성 강한 작품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현악사중주 1번'을 확장한 '현악사중주 2번' 이후 프리커는 약 20여 년 동안 현악사중주를 작곡하지 않다가 엘리엇 카터의 '현악사중주 3번'에 고무되어 자신의 '현악사중주 3번'을 작곡하게 된다. 현악사중주 작품들에 담긴 프리커의 음악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음반이다. *** '현악사중주 2번'(2–4번 트랙) 제외, 세계 최초녹음.**

8.572799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2번

안톤 베레코프스키(바이올린), 알렉산더 첸초프(비올라), 볼프강 엠마누엘 슈미트(첼로), 엘더 네볼신(피아노)

유연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섬세한 호흡 속에 드러나는 긴밀한 흐름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1번과 3번이 수록된 전작(Naxos 8.572798)에서 베레코프스키를 비롯한 연주자들은 절제된 감성과 매끈한 짜임새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3곡의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중 나머지 한 작품이자 기대작인 '피아노 사중주 2번'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 연주자들은 전작에 비해 한층 유연하고 여유로우며 섬세한 호흡으로 브람스 특유의 서정(2악장)과 뜻밖의 경쾌한 에너지(3악장)를 표현한다. 말러 피아노 사중주에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흐름까지 더해 흠잡을 곳 없는 연주는 기대감을 충족시킨다. 감상을 적극 권한다.

8.573258

카리시미: 8개의 모테트

카리시미 콘소티움, 게릭 코모(지휘)

오라토리오 못지않은 작품성을 갖고 있는 카리시미의 모테트 작품들

오라토리오의 전형을 확립하는 등 종교음악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던 카리시미의 작품을 조명하는 카리시미 콘소티움의 네 번째 음반이다. 본 음반에는 수록된 8개의 모테트 중 '악인이 언제까지(Usquequo peccatores, 3번 트랙)'는 모테트와 오라토리오의 경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악보의 진위와 연주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증에 의거해 카리시미 작품을 연주하고 있는 카리시미 콘소티움의 특별한 노력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풍부한 음향과 스케일, 따뜻한 감성은 겨울날 마음 한 구석을 녹일 만큼 인간적이다.

8.573425

체르니: 오르간 작품집

이언 퀸(오르간)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체르니의 폭넓은 작품 세계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는 체르니의 작품들 중에서도 건반 악기 작품들은 그의 명성과 닿아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체르니의 오르간 작품들은 피아노 작품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바흐의 전통 위에서 다듬어진 체르니의 숙련된 대위법이 담겨있는 '서주와 푸가'를 비롯해 오르간 건립이 성행하고 있던 당시 영국 시장을 겨냥한 '20개의 짧은 볼룬터리'와 '12개의 입문 혹은 중급자를 위한 볼룬터리'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체르니의 폭 넓은 작품 세계와 시대감각을 보여주는 숨겨진 명작이라 할 만하다. 감상을 적극 권한다.

8.57346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평민 귀족 &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모음곡(오케스트라버전)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앤 팔레타(지휘)

극중극의 관계에 있는 두 작품, 유려하고 우아한 선율과 음향이 돋보이는 편곡과 연주

몰리에르의 희곡을 바탕으로 작곡된 릴리의 '서민귀족'은 영화 '왕의 춤'과 '세상의 모든 아침' ost에도 등장해 익숙하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역시 '서민귀족'을 바탕으로 같은 이름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흥행에 실패하게 되자 오페라 부분을 분리해 '낙소스의 아리아드네'를 탄생시켰다. '서민귀족'에 대한 작곡가의 각별한 애정은 모음곡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본 음반에는 극중극의 관계에 있는 두 작품이 모음곡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오초아의 편곡버전은 두 작품의 각별한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카프리치오'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편곡이 압권이다. *** '낙소스의 아리아드네'(윌슨 오초아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10–16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610

모뉴슈코: 발레음악 작품집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안토니 비트(지휘)

오페라 적인 색채와 폴란드 민족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모뉴슈코의 관현악 작품

러시아 5인조 중 한 사람인 세자르 큐이를 가르치기도 했던 작곡가 모뉴슈코는 쇼팽 이후에서부터 시마노프스키가 등장하기 전까지 19세기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자리하고 있다. 모뉴슈코의 작품은 대부분 오페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은 오페라적인 색채에 민족 음악을 결합시킨 모뉴슈코 만의 독창적인 어법으로 폴란드 민족의식을 고양한다. 모뉴슈코의 대표작인 '할카'와 '백작부인', '유령의 집' 등에서 발췌한 관현악 작품들의 장쾌하고 위풍당당한 면모는 폴란드 국민 음악의 선구자 모뉴슈코의 면모를 느끼기에 부족함 없다.

8.573708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17집

숀 케나드(피아노)

윤기와 생생함을 머금은 색다른 해석

555여곡에 이르는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는 시리즈 17번째 음반이다.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이 구현된 건반 소나타는 작곡가로서 스카를라티의 모든 능력과 애정이 담긴 스카를라티 음악 세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작품 속에 표현된 다양한 이미지들까지 고려한다면, 그의 건반 소나타는 작품 수를 능가하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카랑카랑하거나 갑작스런 도약보다는 느긋한 전개, 윤기와 생생함을 머금은 터치를 통해 작품에 담긴 또 다른 이미지를 드러내는 숀 케나드의 색다른 해석이 흥미롭다.

8.573720

패트릭 호우즈: 계시록 & 팔복(八福)외

존 존슨(색소폰), 레슬리 디아스(피아노), 엘로라 싱어즈, 노엘 에디슨(지휘)

정갈한 반주 속에 흐르는 단아한 음성, 간결하고도 분명한 메세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인 패트릭 호우즈의 최근 작품들이 수록된 음반이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이미지가 표현된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호우즈의 각별한 애정이 담겨 있다.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한 '팔복(八福)'은 온화한 분위기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신비로움을 그려내고 있다. 정갈한 반주 속에 흐르는 엘로라 싱어즈의 단아한 음성은 성서의 내용을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호우즈의 의도와 닿아있다. '복음의 순전함'을 드러낸 작품과 연주 모두 수작이라 할 수 있겠다. *** '콴타 퀄리아(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가, 23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464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2집(5–8번)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스위스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품격있는 분위기와 우아한 선율, 현란한 기교가 결합된 드비엔느의 플루트 협주곡

생전에 오페라 작품과 교육자로 유명했던 드비엔느의 본령은 관악기, 그 중에서도 플루트를 위한 작품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작곡한 13개의 플루트 협주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2번째 음반에는 1785년 이전에 작곡된 네 작품(1–4번)이 수록된 1집(NAXOS 8.573464)에 이어 1787년에서 부터 1794년 사이에 작곡된 네 작품(5–9번)이 수록되어 있다. 품격 있는 분위기와 우아한 선율, 현란한 기교가 결합된 그의 플루트 협주곡에는 점차 세련미를 더해가는 드비엔느 작곡 어법이 담겨있다. 깔끔한 음질과 정교한 연주 모두 만족스럽다.

8.573505

엔리케 소로: 관현악 작품집

칠레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세 루이스 도밍게스(지휘)

이탈리아와 칠레 전통 음악의 매력적인 결합

20세기를 대표하는 칠레 작곡가 엔리케 소로는 밀라노 음악원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칠레 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칠레 민속 음악 요소와 유럽 음악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소로의 관현악 작품들에는 그의 이 같은 행적이 담겨 있다. 특히 '신포니아 로만티카'는 칠레 최초의 교향곡으로 음악사에 남아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유려한 선율과 이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음향, 당당한 리듬 등 작품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는 호세 루이스 도밍게스의 명쾌한 해석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 '안단테 아파시오나토'(5번 트랙), '신포니아 로만티카'(6–9번 트랙) 세계 최초녹음.**

8.573738

할보르센 & 닐센: 바이올린 협주곡/ 스벤젠 : 로망스

헨닝 크라게루트 (바이올린),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야르테 엥에세트(지휘)

할보르센의 숨겨진 역작, 바이올린 협주곡

1908년 작곡된 할보르센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1909년 위트레흐트에 열린 초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한 때 학보가 소실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초연자인 캐나다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캐슬린 팔로의 유품들 속에서 존재를 드러냈다. 노르웨이 전통 바이올린인 '하르당에르'를 연상시키는 요소들과 북구의 서정은 음반에 같이 수록된 닐센의 '바이올린 협주곡', 스벤젠의 '로망스'에 뒤쳐지지 않은 만큼 매혹적인 자태를 뽐낸다. 크라게루트의 명쾌하고 탁월한 연주는 다시 한 번 호평을 기대하게 한다. 감상을 적극 권한다.

*** '할보르센, 바이올린협주곡'(1–3번 트랙), 세계 최초녹음.**

8.579009

칸 아틸라: 교향곡 2번(갈리폴리 – 57연대)

안젤라 아히스카이(소프라노), 오누르 셰늘러(첼로), 빌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라크 튀쥔(지휘)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추모, 평화를 염원함

터키의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 칸 아틸라의 '교향곡 2번'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오스만 투르크(터키)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갈리폴리 전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아틸라는 같은 이름의 영화(2012년)에서 음악을 맡기도 했는데, 교향곡 2번은 당시 작곡된 영화 음악을 기초로 작곡되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터키 57연대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연합군(안작부대)을 추모하는 1악장과 2악장의 가슴 뭉클한 첼로 선율,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는 4악장 '평화의 노래'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남긴다.

*** 세계 최초 녹음.**

Ondine www.ondine.net

ODE 1263-2

브람스: '네 개의 엄숙한 노래'(클라네르트 편곡), 클라렛 소나타 1번(베리오 편곡) 외

올라리 엘츠(지휘),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미쉘 낭시(바리톤), 카리 크리쿠(클라리넷)

초심자부터 마니아까지 사로잡는 브람스 오마주!

브람스 가곡의 존재만 알 뿐, 애청하지 않던 이들이 이 음반을 접한다면 지금까지 몰랐던 그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브람스 작곡 · 데틀레브 글라네르트(b.1960) 편곡의 '네 개의 엄숙한 노래' Op.121은 클래식 마니아는 물론 초심자에게도 깊게 다가가는 매력이 있다. 바리톤 미쉘 낭시의 음성, 올라리 엘츠의 지휘는 모든 음들을 섬세하게 살려낸다. 글라네르트의 '먼 대지'와 베리오(1925~2003)가 편곡한 브람스 클라리넷 소나타 1번 모두 브람스 오마주 작품으로 브람스 특유의 진중한 무게가 잘 담겨 있다. 스피커를 깊이 채우고, 무겁게 토해내는 음향 역시 일품.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100064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에크(소프라노), 얀손(알토), 쿨리(테너), 창용(바리톤), 코펜하겐 필, 란 슈이(지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베토벤

베토벤의 작품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다면 이 음반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코펜하겐 필'과 전 수석지휘자였던 란 슈이는 이 곡을 200년 전을 오늘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61분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 속에 오늘날의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와 스피드로 풀어냈다. 특히 1악장이 들려주는 음악적 긴장감은 액션영화의 흥미진진한 긴장감에 못지않으며, 느린 3악장에서도 여유 부릴 틈을 주지 않는다. 대포를 쏘는 듯한 팀파니의 연타로 시작하는 등 신선한 극적 라인을 그리는 4악장도 역시 인상적이다.

Philharmonia • rec www.jazzwerkstatt.eu

PHR0106

림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파비오 루이지, 취리히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바르틀로메예 니치올(악장 · 바이올린)

지휘자와 악장, 오케스트라가 만드는 삼위일체의 미학

베를리오즈 · 라흐마니노프 · 바그너 · 브루크너 등 현재 10종도 채 안 되지만, 2012년부터 파비오 루이지가 이끌고 있는 취리히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의 자체레이블은 현장성을 살린 녹음으로 유명하다. 오페라와 교향곡에서 루이지가 나타내는 두각은 선율에 유려한 미학을 더하는 기교와 철학이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담은 이 앨범에서도 그의 이러한 특징을 어김없이 만날 수 있다. 취리히 오케스트라 악장 바르틀로메예 니치올의 독주 바이올린은 교향곡 속에 숨어 있는 소협주곡의 맛을 선사한다. 지휘자 · 악장 · 오케스트라의 삼위일체란 이런 것.

PHR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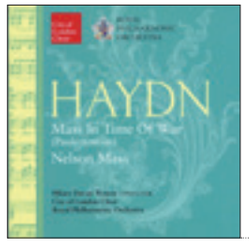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트리오 1번 · 2번

리즈 드 라 살(피아노), 바르틀로메예 니치올(바이올린), 클라우디어스 헤르먼(첼로)

파비오 루이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적 연인의 피아노 3중주

아직 10종도 안 되지만, 파비오 루이지가 이끄는 취리히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자체레이블은 현장성을 살린 녹음으로 유명하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3중주 1번과 2번이 수록된 이 앨범은 취리히 오케스트라 악장 바르틀로메예 니치올, 첼로 수석 클라우디어스 헤르먼, 그리고 프랑스의 젊은 피아니스트 리즈 드 라 살(b.1988)이 함께 했다. 앨범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리즈 드 라 살이다. 루이지&취리히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4번과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이 레이블을 통해 발매한 바 있는 그녀는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의 면모를 완벽히 재연해낸다.

RPO www.rpo.co.uk



RPO SP 054

하이든: 전쟁 시대의 미사, 넬슨 미사

시티 오브 런던 합창단,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힐러리 더반 위튼(지휘)

하이든 말기에 작곡된 대표적인 대규모 미사곡의 향연

'전쟁 시대의 미사'가 작곡된 1796년 당시 유럽은 프랑스 시민혁명과 나폴레옹의 침공, 터키의 위협 등으로 매우 불안했다. 이에 하이든은 찬양과 승리를 상징했던 C장조로 작곡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트럼펫과 팀파니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팀파니(파우켄) 미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2년 후에 작곡된 '넬슨 미사'는 세 번째 곡으로, 본래 제목은 '불안한 시대의 미사'였던 만큼 질풍노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곡은 나폴레옹을 무찌른 넬슨 제독이 에스테르하지를 방문했을 때 연주되어 '넬슨 미사'로 불린다.

RPO SP 055

1960년대의 음악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리처드 발콤(지휘)

지금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1960년대의 블록버스터 뮤직

"발콤의 지휘봉이 진정으로 빛나는 곳에서 즐거움이 시작된다." 지휘자 발콤은 최고의 편곡자이며, 또한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다. RPO와 함께 한 이 음반은 이러한 발콤의 명성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업이다. 'California dreamin'', 'I only want to be with you', 'Mission: Impossible' 등 1960년대 유행했던 음악들을 노래와 관현악으로 편곡한 그의 솜씨는 당시의 음악적 감흥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관현악의 다양한 음색과 풍부한 음향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매우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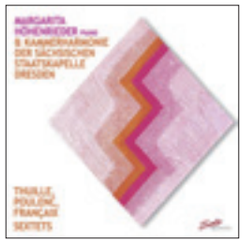
SM 241

차이코프스키: 현악사중주 1번/ 글라주노프: 다섯 개의 노벨레테 등

카잘 사중주단

러시아에서 탄생한 보석과 같은 현악사중주 작품들

차이코프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은 유명한 '안단테 칸타빌레'가 들어있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글라주노프는 러시아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로, 음악사상 가장 천재적인 작곡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걸작을 남겼는데, 현악사중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티츠는 독일 출신이지만 일생의 절반이 넘는 40년 동안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살면서 카테리나 2세의 궁정에서 일했다. '현악사중주 3번'은 그의 탄탄하고 우아한 음악세계를 충분히 보여준다.



SM 251

투일레, 풀렝크/ 프랑세: 피아노와 목관오중주를 위한 육중주곡

작센 슈타츠카펠레 실내악단, 마르가리타 회헨리더(피아노)

다양한 음색과 풍부한 음향이 만드는 음악적 즐거움

루트비히 투일레는 오스트리아 낭만음악의 거장으로, 특히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육중주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탄탄한 구조를 갖추면서 낭만문학의 장면들을 보는 듯한 극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풀렝크는 진지함보다는 즐거운 음악을 쓰고자 했던 프랑스 작곡가로, 그의 독특한 유머는 남다른 음악적 즐거움을 준다. 그의 육중주는 시작부터 독특한 멜로디와 톡톡 튀는 화음이 넘쳐난다. 프랑세는 대중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한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작곡가로, '황혼 무렵'은 재미있는 음악적 묘사를 들려준다.

SM 253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3번/ 베르크: 피아노 소나타, Op. 1

플로리안 크룸피크(피아노)

남다른 무게감 있는 터치로 중후한 사운드를 만드는 크룸피크의 마법 같은 연주

브람스는 20세에 피아노 작품으로 작곡가로서의 출사표를 던졌다. 바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교향곡을 썼던 것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완성한 것 같지만, 특히 '소나타 3번'의 음악적 무게감과 완성도는 20세 청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완숙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진지하고 아름다운 주제와 극적 진행 방식, 그리고 화성적 해결 방식에서 이미 브람스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베르크의 소나타는 낭만주의 어법으로 쓴 작품으로, 중후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로 피아니스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07

아메리카 어게인

라라 다운스(피아노)

미국에서 탄생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들

미국은 인디언 음악과 유럽,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음악이 뒤섞이면서 진정한 세계음악을 지향했다.
이 음반은 이렇게 형성된 미국음악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준다. 전통적인 고전음악 작곡가 에이미 비치부터 재즈의 기원 중 하나인 래그타임의 왕 스콧 조플린, 재즈와 클래식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준 거슈윈, '아프리카의 말러'라고 불렸던 콜리지-테일러, 유태인으로서 새로운 음악 조류를 만든 블로흐, 재즈의 거장 어빙 벌린,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로 손꼽히는 코플란드, 대중음악의 거장 해롤드 알렌까지 미국적인 서정을 폭넓게 조망한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71

쇼팽: '마주르카'

앤드류 랜젤(피아노)

피아노가 말한다. "Shall We Dance?"

베토벤과 바흐가 중심이며, 하이든 · 브람스 · 슈베르트 · 닐센 · 버르토크 등 20종의 앨범을 낸 앤드류 랜젤은 피아니스트이자 화가, 작가로도 활동하는 재주 많은 음악가이다. 스타인웨이 레이블에서 쇼팽 앨범에 주력하고 있는 그가 2장의 CD에 58곡의 마주르카를 담았다. 폴란드 고유의 춤곡 형식을 일컫는 '마주르카'는 쇼팽을 통해 세련된 옷을 입었지만, 앤드류는 템포 루바토(완급 조절)를 활용하여 세련미와 함께 춤곡에 내재된 즉흥적이고 경쾌한 율동성에 방점을 찍는다. 앤드류가 직접 쓴 해설(영어)에선 그의 작가적 재치가 느껴지기도 한다.

Tafelmusik www.tafelmusik.org

TMK1027CD

헨델: 메시아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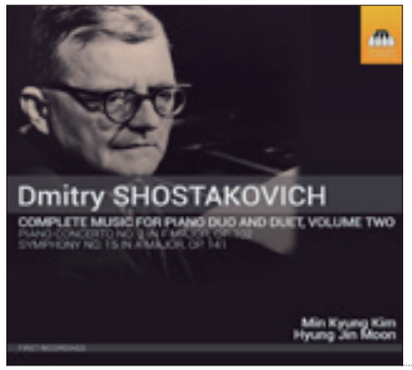
타펠무지크 챔버 콰이어,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이바스 토린스(지휘)

완벽한 헨델리안이 들려주는 '메시아'의 명곡들

"토린스는 완벽한 헨델리안이다. 헨델 최고의 음악에서 최상의 것을 들려준다." 이바스 토린스에게 쏟아지는 헨델의 〈메시아〉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는 타펠무지크의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으로, 지휘자로서의 수많은 커리어 중 그가 이끄는 타펠무지크 챔버 콰이어는 가장 눈부신 성과이다. 2011년 12월에 있었던 이 연주에서는 고도로 정제된 합창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뮤지컬을 듣는 듯한 풍부한 표현은 다른 연주에서 보기 힘든 그만의 것이다. 또한 이바스 토린스는 타펠무지크와 함께하여 최상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이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 0292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 피아노 협주곡 2번

김민경, 문형진(피아노)

쇼스타코비치가 자신의 관현악곡을 직접 편곡한 피아노 이중주 작품들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관현악 작품들을 두 대의 피아노로 편곡하곤 했는데, 이들은 콘서트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특히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본래 피아노 이중주곡이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한 음악적 효과를 들려주고 있다. 명쾌한 선율과 뚜렷한 리듬을 가진 양단악장과 쇼팽을 연상케 하는 로맨틱 피아니즘을 들려주는 완서악장은 피아노에 최적화되어있다. '교향곡 15번'은 원곡의 유머러스한 특징이 두드러지며 새로운 음악적 재미를 준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앙상블은 손색없이 훌륭하다. ***세계 최초 녹음**

TOCC 0300

스튜어트 추기경의 로마 음악가들

카펠라 페데, 아르모니아 사크라, 피터 리치(지휘)

바로크 말기와 고전시대를 관통하는 로마 음악의 영광을 재현하다

1740년부터 1791년까지 로마에서 활동했던 헨리 베니딕트 스튜어트 추기경은 당시 정상급 음악가들인 세바스티아노 볼리스, 지오바니 참보니, 카를로 테라시니, 니콜로 조멜리 등과 교우를 가졌으며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음악은 거의 잊혀졌는데, 이 음반은 그들의 작품들을 수록하여 옛 영광을 재현했다. 이들은 바로크 말기와 고전시대에 걸쳐있는 작품들로, 엄숙하고 대위법을 구사하는 종교곡에서 화려한 멜로디를 지닌 음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보컬 앙상블인 카펠라 페데의 노래는 순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TOCC 0333

나의 사랑을 위한 음악 1집

코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울 만(지휘)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토카타 레이블의 운영자인 마틴 앤더슨은 자신의 파트너인 에리트리아 난민 출신의 여인 요디트 테클이 위암 진단을 받자, 몇 작곡가들에게 그녀를 위한 현악 작품을 의뢰했다. 테클은 곧 세상을 떠났지만 음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고, 이 소식은 널리 알려져 100명이 넘는 작곡가들이 참여했다. 브람스의 '영원한 연인에게' 편곡을 비롯하여, '요디트를 위한 자장가', '요디트를 위한 고별', '요디트를 위한 노래' 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기에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다.

***세계 최초 녹음**

TOCC 0383

뵐플: 서주와 푸가로 시작하는 소나타, 소나타 B단조, 소나타 F장조

아달베르토 마리아 리바(피아노)

베토벤의 무게감과 슈베르트의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19세기 초의 숨겨진 걸작

요제프 뵐플은 어린 시절 모차르트 가족과 가까이 지냈으며, 빈에서는 베토벤의 라이벌로 여겨졌고, 런던에서는 하이든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 그의 음악은 하이든과 클레멘티, 모차르트를 잇는 위치에 있으며, 슈베르트와 멘델스존을 예지하는 특징들이 엿보인다. 30대 초에 작곡한 '서주와 푸가로 시작하는 소나타'는 후기 바로크부터 초기 낭만까지 모든 음악을 총정리한 대작이며,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소나타 B단조'와 '소나타 F장조'는 베토벤의 무게감과 슈베르트의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걸작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TOCC 0366

조지 핀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 · 2번 · 3번

켄지 후지무라(피아노), 엘리자베스 샐러스(바이올린)

21세에 사망한 작곡가가 남긴 아름다움의 절정

음반 해설을 집필한 폴 컨웨이는 영국의 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핀토(1785~1806)에 대해 "실력에 비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라고 한다. 21살에 사망했지만, 음반에 수록된 소나타 1번 · 2번 · 3번은 그가 20곡 이상 작곡한 바이올린 곡의 아름다움을 가늠케 한다. 엘리자베스 샐러스와 켄지 후지무라는 2006년부터 모차르트와 언저리의 작곡가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핀토의 소나타에는 모차르트의 음영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곡에 담긴 작품성인지, 두 사람의 빼어난 호흡 때문인지, 각 곡의 아다지오 · 안단테 악장이 너무 아름답다.

TOCC0245

부쉬: '소나타' 등 피아노 전곡

야코프 피허트(피아노)

강렬한 호소력과 이지적이고 진지한 예술혼을 담은 부쉬의 피아노곡

아돌프 부쉬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바이올린의 전설적인 거장이었다. 그런데 그는 적지 않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이기도 했다. 그는 막스 레거의 영향을 받아 고전과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다. 이 음반에 녹음된 피아노 전곡은 부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형적이지만 현대적인 일탈이 엿보이는 멜로디와 화려한 대위법의 결합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감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매력을 갖고 있으며, 이지적이고 진지한 부쉬의 예술혼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30분이 넘는 대규모의 '소나타'는 압권이다.

***세계 최초 녹음**

Yarlung Records

www.yarlungrecords.com

얄룽레코드(Yarlung Records)는 로스엔젤레스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얄룽레코드의 이름은 티베트 문명의 발상지이자 티베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얄룽대협곡'에서 따왔다. 레이블의 로고에는 얄룽대협곡 안에 위치한 티베트에서 가장 오래된 왕궁, '융부라캉 성'의 모습을 넣었다. 하늘과 땅의 접점에 솟아있는 융부라캉 성은 천지와 감응하는 인간의 모습인 동시에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음악의 위대한 힘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로스엔젤레스 소재 유명 공연장(디즈니 콘서트홀, 제게르슈트롬 콘서트 홀, 브로드 스테이지 등)에서 연주된 연주자들의 녹음을 실황 그대로 구현하는 고해상도의 음반과 디지털 음원은 레이블의 이름과 로고에 담긴 '얄룽'의 이상과 닿아있다. 압도적인 선명도를 자랑하는 얄룽레코드 만의 특별한 녹음은 연주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YAR27517 [Audiophile CD]
아르헨티나의 음악들(일라이 & 이디스 브로드 스테이지 녹음)
안토니오 리지(첼로), 캐피털 앙상블(연주)

그윽한 반향 속에서 메아리치는 열정과 우수
향구와 팜파스를 배경으로 탄생한 아르헨티나의 음악은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피아졸라와 히나스테라의 작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본 음반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안토니오 리지의 열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사랑해요, 아르헨티나(Te Amo, Argentina)'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2010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수상작인 랄로 시프린의 '팜파스'(마지막 트랙)는 음반의 백미이다. 안토니오 리지의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연주를 훌륭하게 뒷받침하는 그윽한 반향 속에서 열정과 우수는 한껏 메아리친다.
***랄로 시프린의 '팜파스'(10번 트랙), 2010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수상!!.**

YAR87598
스모크 & 미러즈(Smoke & Mirrors)
스모크 & 미러즈 타악기 앙상블(연주)

영혼을 정화하는 정중동의 울림
단순한 듯 느껴지지만 리듬과 피치, 음색이 교차되며 빚어내는 강렬한 반향은 타악기 앙상블 특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모크 & 미러즈 타악기 앙상블은 스티브 라이히, 에릭 휘태커, 토루 다케미츠 그리고 라벨 등의 타악기 혹은 타악기 편곡 작품을 음반에 담았다. 절묘한 앙상블을 통해 펼쳐지는 깊고 고요한 울림, 역동적인 움직임은 명징한 음질과 너른 스케일을 갖춘 얄룽 레코드의 녹음을 통해 한층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영혼을 정화하는 피안의 파동은 산방(山房)의 명상을 떠오르게 한다.
멋지고 아름다운 녹음이다. 필청을 권한다.

조락(凋落)하는 풍경 너머 '영원'을 향해있는 말러의 시선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실황이 드디어 음반으로 출시되었다. '영원(ewig)'의 공명이 물결치는 1악장 초반부에서부터 신랄하고 리드미컬하게 비틀거리는 죽음의 춤사위(2악장과 3악장), 모든 것들과의 이별이 담긴 4악장에 이르기까지 얀손스는 차분히 그리고 충실하게 말러의 메시지를 읊고 있다. 특히, 4악장은 익히 유명한 이전의 명반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조락(凋落)하는 풍경을 딛고 서서 여전히 이별을 주저하고 있지만, 그 너머의 재생과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말러의 마지막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반드시 들어봐야 할 음반이다.

BR Klassik 900151
[2016년 10월 20–21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 실황녹음]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연주), 마리스 얀손스(지휘)

[수록곡]
Gustav Mahler: Symphonie Nr. 9
01. Andante comodo
02. Im Tempo eines gemächlichen Ländlers. Etwas täppisch und sehr derb
03. Rondo-Burleske. Allegro assai. Sehr trotzig
04. Adagio. Sehr langsam und noch zurückhaltend

[마리스 얀손스와 함께하는 BR Klassik Album]

900003
[2016카다로그 포함]
BR 클래식 하이라이트

900105
[SACD Hybrid]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900111
[SACD Hybrid]
브람스: 교향곡 2 & 3번

403571900100
[SACD Hybrid]
브루크너: 교향곡 7번

403571900101
[SACD Hybrid]
말러: 교향곡 7번

900112
[2CD for 1.5]
브람스: 교향곡 1 & 4번

900123
쇼스타코비치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900144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핀란디아, 카렐리아 모음곡

900146
랩소디 – 샤브리에, 거슈윈, 에네스쿠, 라벨, 리스트의 작품

900121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 바레즈: 이오니제이션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 20407 [DVD]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 3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의 양면성을 노래하는 스승과 제자의 랑데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 3번. 아마데 카머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협주곡 2번)**,
뷔르템베르크 카머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협주곡 3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3번을 수록한 영상물

장조의 협주곡 2번에 담긴 베토벤의 환희, 단조곡 3번에 담긴 비애의 협주곡이 커플링된 영상물이다. 희비의 협주곡을 놓고 오래된 스승과 제자 관계로 유명한 레온 플라이셔와 마르가리타 훼리더가 만났다. 이 영상에 담긴 2014년 9월 졸페라인 공연장(에센 위치) 실황은 오른손 질환 때문에 1970년대부터 지휘로 전향한 플라이셔와 1981년 부소니 콩쿠르 우승자인 헨리더가 처음으로 조우한 공연이다. 두 협주곡 모두 편안한 연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베토벤 특유의 질풍노도적 기운을 뿜어낼 때는 기분 좋은 흥분감을 선사한다. 보너스 트랙에는 두 사람의 오래된 인연과 음악관이 담겨 있다.

[보조자료]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과 3번을 수록한 영상물이다. 레온 플라이셔 지휘, 마르가리타 훼리더의 협연으로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아마데 카머필하모닉과 함께 한 2014년 9월 9일 졸페라인 공연장(에센 위치) 실황이고,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뷔르템베르크 카머필하모닉과 함께 한 2015년 10월 14일 막스 리트만홀(키싱겐 위치) 실황이다.

– 이 영상물에는 두 개의 콘셉트가 돋보인다. 하나, 베토벤이 작곡한 5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밝은 기운이 넘쳐나는 '장조'의 협주곡과 비애가 서려 있는 '단조'의 협주곡이 커플링되어 베토벤의 양면성을 느껴볼 수 있는 구성이다. 둘, 레온 플라이셔의 지휘와 그를 사사한 마르가리타 훼리더의 협연으로 사제 간의 호흡을 느껴볼 수 있다.

– 피아니스트 마르가리타 훼리더는 1981년 부소니 콩쿠르 우승 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다 1991년부터 뮌헨 음대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녀의 스승은 지휘를 맡고 있는 레온 플라이셔다. 이 공연에서 지휘봉을 든 그는 1952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부분이 실시되었을 때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1965년부터 시작된 오른손의 질환 때문에 연주에 많은 지장을 느꼈고, 이후 왼손을 위한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연주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음악과의 연결점을 피아노가 아닌 지휘로 맺었고, 1970년부터 정식적으로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

– 두 사람은 사제 관계를 넘어 우정을 쌓은 관계로 까지 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 처음 만난 것은 이 영상물에 수록된 2014년 에센 공연이다. 모차르트 · 베토벤 · 슈만 · 클라라 슈만 등을 주요 레퍼토리고 하고 있는 훼리더의 서정미는 일품이다. 특히 대성한 제자가 가야할 길을 미리 꿰고 있는 스승과 그 길을 자신의 색을 뿜으며 뛰고 걷는 제자의 연주는 편안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베토벤 특유의 질풍노도적 기운을 뿜어낼 때 두 사람의 호흡은 기분 좋은 흥분감을 선사한다.

– 이 외에도 동영상에는 다양한 흥밋거리가 보인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오르는 곳은 에센북부 외곽에 취히나 졸페라인 공연장. 원래 탄광이었으나 폐광 이후 디자인학교, 공연장 레스토랑 등의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콤플렉스로 자리 잡은 곳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 있는데, 동영상을 현장의 울림을 담고 있는 음향감이 빼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 협주곡 3번을 함께 한 뷔르템베르크 카머필하모닉이 국내에 갖고 있는 인지도에 비해 협주곡 2번을 함께 한 2번은 아마데 실내 관현악단은 1997년 설립된 체임버 오케스트라다. 특히 모차르트 레퍼토리에 강세를 보이는 이 악단은 쾰른 · 에센 · 뒤셀도르프 · 보훔 · 부퍼탈 · 본을 안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공연 영상은 약 75분이며, PCM 스테레오, 돌비 디지털 5.1, DTS 5.1 오디오 옵션을 갖췄다. 13분 분량의 보너스 필름에는 피아노 협주곡 3번 리허설을 담았다. 보너스 필름에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서로의 음악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너스 필름의 자막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되어 있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275 [Blu-ray]

Elgance 시리즈

존 뉴마이어의 발레 〈베니스에서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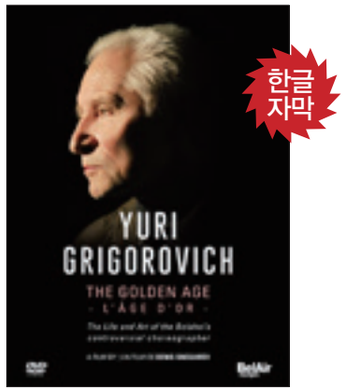
함부르크 발레단

존 뉴마이어의 손을 통해 아름다운 모던 발레로 재탄생한 토마스 만의 소설

토마스 만이 1912년에 발표한 소설인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베니스로 휴양을 떠났다가 타지오라는 미소년의 절대적 아름다움에 매혹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소설가 구스타프 폰 아센바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루키노 비스콘티가 영화(1971년)로 제작하였고, 영국 작곡가 브리튼 역시 이를 토대로 동명 오페라(1973년)를 작곡하였다. 현재 함부르크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무용가인 존 뉴마이어는 이를 아름다운 모던 발레로 변모시켰다. 그는 주인공 아센바흐를 소설가가 아닌 무용안무가로 재설정하였고,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그너의 '사랑의 죽음'과 같은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제스로 툴과 잉베이 말름스틴 등의 바로크 록음악까지 적절히 활용하여 작품을 일관하는 사랑과 비극의 드라마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본 영상물은 2004년 바덴–바덴 페슈트필하우스에서 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뉴마이어의 페르소나인 로이드 리긴스가 아센바흐를, 함부르크 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에드빈 레바초프가 타지오를 열연하였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37 **[DVD]**

BelAir classiques

영상 다큐멘터리: 볼쇼이발레단의 전설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삶과 예술

데니스 네기레프(감독), 유리 그리고로비치(출연) 외

볼쇼이발레단의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예술을 말하다

1964년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에 취임한 이래 1995년까지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며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를 전 세계 알렸던 유리 그리고로비치. 그의 작품들이 2000년에 국립발레단에 전수되며 한국 발레사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영상물은 1927년생인 그의 인터뷰와 증언을 토대로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하여 대표작과 그의 인생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이다. 흑백 영상, 볼쇼이 발레단의 전설적 무용수와 무용평론가 등이 출연하여 그리고로비치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지나간 시간을 증언한다.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보조자료]

– 1927년생인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발레 창작과 고전발레의 재해석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무용학교 졸업 후, 1957년의 '석화', 1961년의 '사랑의 전설' 안무로 성공을 거뒀고, 1964년 볼쇼이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래 1995년까지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하며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를 전 세계에 알렸다.

– 그는 국립발레단과의 인연으로 한국에도 크게 알려진다. 국립발레단은 볼쇼이발레단 전통의 '호두까기 인형'을 2000년 12월에 올렸고, 이듬해에는 1968년 볼쇼이발레단이 초연했던 '스파르타쿠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스파르타쿠스'는 20세기 러시아 발레를 대표하는 명작, 볼쇼이 스타일의 강인한 남성미를 로마군의 화려함에 담은 발레, 기독교적 감성과 이교적 감성이 대립하는 작품 등으로 불린다. 국립발레단의 적극적인 공연으로 인해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한국의 발레사에도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기억되게 되었다.

– 총 길이 87분의 다큐멘터리 '유리 그리고로비치, 그 황금기'는 그리고로비치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영상 자서전과 같은 영상물이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담고 있다. 러시아 발레의 역사적 무대를 담고 있는 흑백 영상, 볼쇼이발레단을 대표하던 전설적인 무용수들, 무용평론가 등이 출연하여 그리고로비치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지나간 시간을 증언한다.

– 한 무용가의 일생과 작품을 담고 있지만, 보고 듣고 있노라면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연결된 19~20세기 발레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정치적 변화를 접하게 된다.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BelAir BAC044 **[DVD]**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의 글루크/피나 바우쉬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피나 바우쉬(안무 · 댄스오페라), 토마스 헹엘브로크(지휘),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 · 합창단, 얀 브리다드(제1무용수 · 오르페우스), 마리아 리카르다 비젤링(메조소프라노 · 오르페우스), 마리안느 쥘로(수석무용수 · 에우리디케), 율리아 클레이터(소프라노 · 에우리디케), 미테키 쿠도 · 임선혜(소프라노 · 아모르)

피나 바우쉬의 마지막 작품이자 영상물로 허락한 단 하나!

2008년 2월,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선보인 글룩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실황으로, 안무가 피나 바우쉬가 촬영과 영상물 제작을 허락한 단 하나의 영상물이다. 바우쉬는 글룩의 음악적 의도를 존중하며 오페라발레의 원형을 매우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토마스 헹엘브로크가 이끄는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과 합창단 모두 훌륭하며, 특히 소프라노 임선혜가 아모르 역으로 출연해서 멋진 노래를 들려준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대부분 프랑스어로 부르지만, 이 공연에선 독일어로 부른다. 자막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총 공연시간은 104분이다. 2000년 파리오페라발레단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무용수로 입단하여 2009년 쉬제(군무와 주역을 오가는 솔리스트)로 은퇴한 김용걸이 하계를 지키는 세 괴물 중 하나로 등장하여 존재감 있는 캐릭터를 드러낸다.

[보조자료]

– 2008년 2월,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에 올라 화제를 뿌렸던 글룩(1714~1787)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실황이다(이탈리아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프랑스어로 <오르페와 유리디스>, 독일어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고 읽는다). '댄스-오페라(dance-opera)'를 맡은 피나 바우쉬가 촬영과 영상물 제작을 허락한 단 하나의 영상물로 더욱 소중한 영상물이다.

– 원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무용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오페라로, 글루크의 개혁 오페라 중 첫 번째 작품이며 오페라 역사상 첫 히트작이다. 이를 바탕으로한 피나 바우쉬의 작품은 2009년 6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대표작으로, 글룩의 음악적 의도를 존중하며 오페라발레의 원형을 매우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피나 바우쉬는 글루크의 오페라를 따르되 그 흐름을 애도-폭력-평화-죽음의 4부로 구성했다.

– 피나 바우쉬는 성악가와 무용수를 이중으로 배치했다. 예를 들어 에우리디체 역은 파리 오페라발레단의 수석 마리안느 쥘로와 소프라노 율리아 클레이터가 함께 하는 식이다. 노래와 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눌리지 않고, 각자의 생명력을 지니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토마스 헹엘브로크가 이끄는 발타자르 노이만 앙상블과 합창단 모두 훌륭하며, 특히 소프라노 임선혜가 아모르 역으로 출연해서 멋진 노래를 들려준다.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대부분 프랑스어로 부르지만, 이 공연에선 독일어로 부른다. 자막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총 공연시간은 104분이다.

– 노출 수위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어두운 이야기에 걸맞게 빛과 어둠을 잘 나타낸 무대와 의상 그리고 발레 무용수의 춤이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2000년 파리오페라발레단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무용수로 입단하여 2009년 쉬제(군무와 주역을 오가는 솔리스트)로 은퇴한 김용걸이 하계를 지키는 세 괴물 중 하나로 등장하여 존재감 있는 캐릭터를 드러낸다.

BelAir BAC423 [Blu-ray]

헨델: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 HWV55

마크 모리스(안무), 마크 모리스댄스그룹(MMDG), 제인 글로버(지휘), 마드리드 왕립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사라-제인 브랜든(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와츠(소프라노), 제임스 길크리스트(테너), 앤드류 포스터-윌리암스(바리톤)

헨델과 현대무용의 만남, 무용의 재미와 품격 있는 연주의 만남

헨델의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에 마크 모리스가 1988년 안무해 만든 동명작품으로, 2014년 마드리드 왕립극장 실황 영상물이다. 모리스는 무대를 오선지로 하여 무용수들을 음표로 구사하는 듯 하다. 1080i의 고화질로 움직임과 원색의 의상, 무대의 컬러감을 고스란히 살린 건 보는 재미를 더한다(97분 분량). 마크 모리스와 늘 함께 하는 영국 여성지휘자 제인 글로버의 지휘와 성악가들의 헨델은 이 영상물이 무용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악영상물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주저함 없게 만든다. 오디오 옵션은 2.0 PCM스테레오/5.1 DTS이다. 13분 분량의 보너스 영상은 서곡 연주를 담았다.

[보조자료]

– 헨델이 작곡한 목가적 노래(Pastoral Ode)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에 마크 모리스가 1988년 안무하여 동명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 영상물은 마크 모리스 댄스그룹(MMDG)이 선보인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 2014년 마드리드 왕립극장 공연 실황으로, 마크 모리스와 늘 함께 하는 영국 여성지휘자 제인 글로버가 지휘를, 2007년 BBC 카디프 국제 콩쿨 우승자인 엘리자베스 와츠를 비롯해서 최상의 성악가들이 함께 한다. 마크 모리스의 안무든, 제인 글로버의 지휘든, 그들이 그려내는 헨델은 참신하고 새롭다.

– 존 밀턴(1608~1674)은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로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헨델은 '천지창조' '삼손' 등에서 밀턴의 시구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한다. 음악용어로 빠르게, 경쾌하게라는 뜻을 지닌 '알레그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l'Allegro'는 이탈리아어로 '명랑한 사람'을 뜻하며, 'Il Penseroso'는 '우울한 사람'을 뜻한다. 밀턴은 이것을 별개의 인간으로 보기보단 한 사람 속에 공존하는 정신적 태도로 보고 있으며, 시는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대조와 평행을 이루고 있어 흔히 두 시를 엮어 자매시라고도 부른다.

– 헨델의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 HWV55에서 앞의 두 사람은 밀턴의 시를 인용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대본작가 찰스 제넨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온화한 사람을 뜻하는 'Il Moderato'는 두 기질 사이를 중화시키거나 조정해줄 역할이라 본 것이다. 마크 모리스는 존 밀턴의 시 '명랑한 사람과 우울한 사람' 그리고 윌리엄 블레이크의 후기 수채화에서 받은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 마크 모리스는 요요 마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하나의 영상에 만나게 하여 클래식 음악계에 화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외에 비발디의 '글로리아', 스트라빈스키 '전율'을 안무했으며, 라모의 오페라 '플라테'에 안무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 '명랑한 사람, 우울한 사람, 온화한 사람'은 무대를 오선지로 하여 무용수들을 음표로 구사하는 것 같다. 팝, 바로크, 민요, 컨트리 음악 등 무엇이던 간에 그의 안무는 음악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도 큰 특색. 백인 일색의 무대에 익숙해 있는 관객들은 라이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피부색이 뿜어내는 역동성 역시 인상적이다.

– 1080i의 고화질로 무용수들이 입은 원색의 의상과 무대의 컬러감을 고스란히 살린다. 오디오 옵션은 2.0 PCM스테레오와 5.1 DTS 마스터 오디오. 무용작품은 97분 분량이며, 13분 분량의 보너스 영상은 서곡 연주를 담았다. 보너스 영상은 마드리드 왕립극장 내부와 꼭대기에서 오케스트라 피트를 비추는데, 이것부터 접하고 무용 공연을 보면 실제 극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공연현장의 생생함과 사운드의 질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BelAir BAC474 [Blu-ray]

유리 그리고로비치 재안무: '지젤' 2011년 볼쇼이 극장 실황

유리 그리고로비치(재안무), 아돌프 아담(음악), 파벨 클린니체프(지휘),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스베틀라나 룬키나(지젤), 드미트리 구다노프(알브레히트)

장대한 무대에서 만나는 '지젤'의 미학

초고화질(1080i) 영상 속에서 볼쇼이 발레의 수석무용수 스베틀라나 룬키나가 지젤을, 드미트리 구다노프가 알브레히트를 춤춘다. 보수 공사를 통해 2011년 재개관한 볼쇼이 극장만의 초대형 무대, 선이 굵고 무게감이 살아 있게 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재안무, 큰 키에 길게 뻗은 선과 움직임을 연출하는 룬키나와 구다노프의 호흡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영상물이다. 이 동영상은 이러한 스케일을 최대한 느끼게끔 촬영되었다. 특히, 2막 윌리들의 군무와 영상 속의 살아 있는 질감은 정말 압도적. 스테레오/DTS HD 마스터 오디오 옵션이 볼쇼이 극장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생생함을 제공한다.

[보조자료]

–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이 2005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치고 2011년 재재관했다. 공식적인 재재관 발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였지만 이보다 열 달 앞서 선보인 '지젤'은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볼쇼이 발레의 저력을 재확인하게 해주었다.

– '지젤'은 1841년 첫 공연에서 대성공을 이룬 이래로 지금까지 로맨틱 발레의 대표작이자, 고전 발레의 꽃이라 손꼽힌다. 이 버전은 1964년 볼쇼이 발레에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래 1995년까지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재안무로 탄생한 것으로, 수석무용수 스베틀라나 룬키나가 지젤 역을, 드미트리 구다노프가 알브레히트 역을 맡았다. 스베틀라나 룬키나는 테크닉과 연륜을 통해서 볼쇼이의 전통을 이어갈 최고의 발레리나로 손꼽힌다. 1막에선 순박한 시골 처녀를, 2막에선 슬픈 영혼들의 움직임을, 3막에서는 알브레이트와의 하이라이트 2인무를 선보인다.

– 동작의 라인은 중후하고 여운이 오래 남는다. 파리 오페라발레의 '지젤'과는 성격이 다른 볼쇼이 발레만의 스펙터클도 압도적. 초고화질(1080i)과 스테레오/DTS HD 마스터 오디오 옵션이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제공한다. 극장 복원 과정에서 구소련 당국이 객석 아래 시멘트로 채워놓았던 공간을 완전히 걷어내고 원래 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이 시야는 물론 음향효과의 개선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추천 – 같이 보면 좋은 영상물]

(1) 볼쇼이발레의 전설이 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삶과 예술 다큐멘터리(BelAir BAC 137). 데니스 네기레프(감독), 유리 그리고로비치(출연) 외 (한글자막)

(2) '지젤' 2016년 로열 발레 코벤트가든 실황(피터 라이트 버전): 마리아넬라 누녜스(지젤), 바딤 문타기로(알브레히트), 베리 워즈워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Belvedere (Clasart Classic)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08023 [DVD]
Belvedere 08024 [Blu-ray]

belvedere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돈 키호테',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

마리슨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요요 마(첼로)
(슈트라우스 '돈 키호테'에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악장 안톤 바라코프스키, 비올라 수석 웬 시아오 챙 협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요요 마와 얀손스가 함께 하다!

2016년 1월 29 · 30일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 영상물로, 얀손스와 요요 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돈 키호테'의 다리 위에서 만나 서로의 음악적 우주를 펼쳐놓는다. 세이지/보스턴 심포니와 젊은 날의 요요 마가 함께 했던 '돈 키호테'를 기억하는 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한 연주자의 무르익은 미학을 느끼게 될 것이다. 2부에는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과 교향곡 8번이 담겨 있다. 음질의 감동은 선명한 화질에서 온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클라스아트 클라식(Clasart Classic) 레이블의 기술력으로 인해, 오히려 가슈타익홀보다 더 실황 같은 감동을 선사한다.

[보조자료]

– 2016년 1월 29 · 30일 뮌헨 가슈타익홀 실황 영상물. 일단 선택지가 많다. 마리슨 얀손스와 요요 마, 얀손스의 주요 레퍼토리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 키호테', 애수어린 선율로 빚은 1 · 3악장으로 늘 사랑 받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은 물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를 클래식음악 영상 시장에 급부상시키고 있는 클라스아트 클라식(Clasart Classic) 레이블의 기술력이 빚은 화질과 음질 등등. 이 모든 것은 최고의 영상물을 보유하고 싶은 고급 전문가부터 클래식음악에 맛을 들인 초심자, 모두를 만족시킨다.

– 요요 마는 서주–10개의 변주–후주로 구성된 슈트라우스의 '돈 키호테'(트랙 3~14)에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악장 안톤 바라코프스키, 산초 역할의 비올라 수석 웬 시아오 챙과 함께 한다. 젊은 날, 오자와 세이지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와 함께 녹음했던 '돈 키호테'와 달리 얀손스의 무게의 반경 속에서 자신의 원숙함을 뿜어내는 그 모습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바이올린 · 비올라로 인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핵심 멤버의 저력도 느낄 수 있다. 요요 마는 관객의 환호에 두 곡의 앙코르로 보답한다. 쥘 마스네의 오페라 '돈 키호테'의 '슬픈 둘시네'(트랙 15)로 방금 전 끝낸 대곡(大曲)의 감동을 반추시키는가 하면, 첼로 수석 하논 시몬스와 함께 2중주로 호세 엘리손도(b.1972)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가을'(트랙 16)로 가슈타익 홀의 열기를 뜨겁게 한다.

– 2부는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 Op.92(트랙 17)로 시작된다. 이어진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트랙 18~21)을 연주하는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클라스아트 클래식 레이블에서 발매했던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과 '스타바트 마테르'로 쌓아올린 내공과 저력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특히 교향곡 8번 2악장(아다지오)의 느림과 격정의 하모니, 3악장(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의 애수어린 흐름의 유려함은 이 연주를 잊지 못하게 한다. 연주 중간마다 슬쩍슬쩍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제2바이올린 수석 이지혜(2015년 입단)의 모습도 보인다.

– 한마디로 가슈타익 홀의 실황보다 더 실황 같은 영상물로 실황보다 더 실황 같은 감상 콘디션을 제공한다. 총 길이 111분. 1080p의 초고화질 영상, LPCM스테레오/DTS–HD 5.1의 오디오 옵션으로 중무장했다.

Belvedere 08027 [DVD]
Belvedere 08028 [Blu-ray]

브람스: '독일 레퀴엠'

프란츠 뵐저–뫼스트,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빈 악우협회 합창단, 한나–엘리자벳 뮐러(소프라노), 킨리 사이드(바리톤)

이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음질'의 '독일 레퀴엠'은 없을 것이다

브루크너의 음악적 거점이었던 오스트리아 린츠의 성 플로리안 성당의 풍성하고도 투명한 음향 속에 흐르는 '독일 레퀴엠'의 '듣는 맛'과, 성 플로리안 성당을 이루는 조각과 뵐저–뫼스트와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빈 악우협회 합창단의 표정을 잡는 카메라 워크가 선사하는 '보는 맛'이 일품인 영상물이다. 2016년 8월 실황으로,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을 클래식음악 영상 시장에 급부상시키고 있는 클라스아트 클라식(Clasart Classic) 레이블의 기술력이야말로 '예술'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영상물이다. 총 72분 분량. 한국어 자막을 갖추었다.

[보조자료]

– 프란츠 뵐저–뫼스트가 지휘하는 클리브래든 오케스트라 실황영상으로,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성 플로리안 성당에서 2016년 8월에 선보인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담았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빈 악우협회 합창단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한나–엘리자벳 뮐러, 바리톤 킨리 사이드가 함께 한다.

– 2002/2003년 시즌부터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고 있는 벨저–뫼스트와 미국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들 중에서도 가장 유럽적인 사운드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영상물의 가장 큰 특징은 성 플로리안 성당의 사운드를 몸에 익은 벨저–뫼스트의 공간감이다. 브루크너(1824~1896)가 생시에 오르간 연주가로 봉직했고 그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성 플로리안 성당의 투명한 음향공간에 '독일 레퀴엠'의 장대한 형식미, 강력한 다이내믹 등을 거의 완벽하게 용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오스트리아 린츠 브루크너 페스티벌 기간 동안 성 플로리안 성당 실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린츠 태생의 뵐저–뫼스트는 마치 자신의 고향이라도 온듯 하다.

– 여기에 클래식 음악 영상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레이블인 클라스아트 클라식(Clasart Classic)의 첫 라인업으로 브람스의 교향곡 1~4번까지 전곡을 통해 브람스의 뼈대를 단단히 세운 벨저–뫼스트는 '독일 레퀴엠'에서도 순도 높은 사운드를 뒷받침해준다.

– 이 영상은 '듣는 맛'은 물론 '보는 맛'이 크다. 클라스아트 클라식 레이블의 장점은 모든 공연을 4K카메라로 촬영하여 초고화질인 1080p로 생산한다는 점. 성 플로리안 성당을 이루는 조각과 악단 및 합창단의 표정을 세세히 잡는 카메라 워크는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클라스아트 클라식이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온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영상물 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시킨 힘을 느낄 수 있다.

– 영상은 총 72분 분량. 독일어 · 영어 ·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갖추었다. 1080p의 초고화질 영상, LPCM스테레오/DTS–HD 5.1의 오디오 옵션은 성 플로리안 성당에 앉아 있는 듯한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하이엔드 오디오파일용 영상물의 만개와 그 힘을 알려주는 레이블과 공연장, 음향이 삼위일체 된 콘텐츠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BR Klassik 900515 **[DVD]**

바흐: '요한 수난곡'
십자형 무대 위에 선 '요한 수난곡'

페테르 데이크스트라(지휘), 콘체르토 쾰른,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막시밀리언 슈미트(테너/복음사가), 타레크 나츠미(베이스/예수) 외

십자형 무대 위에 선 '요한 수난곡'

공중에서 내려다본 장엄한 규모의 뉘르베르크 성당의 바닥에는 십자 모양의 무대가 놓여 있다. 성악가들은 무대 퍼포먼스를 통하여 드라마틱한 '요한수난곡'을 만들고, 중간마다 보이는 성당의 인테리어가 이 음악이 지닌 종교성을 더해준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로렌초 성당 실황. 페테르 데이크스트라는 콘체르토 쾰른과 함께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바흐 '요한 수난곡' 속의 신앙심과 바로크 양식의 특징 결합을 매만지고 다듬어 나간다. 막시밀리언 슈미트(테너)가 복음사가를, 타레크 나츠미(베이스)가 예수를 노래한다. 젊은 베이스 타레크 나츠미의 표정 연기가 인상적이다.

[보조자료]

– 독일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로렌초 성당 실황. 지휘자 페테르 데이크스트라는 1985년에 창단된 콘체르토 쾰른과 함께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바흐 '요한 수난곡' 속의 신앙심과 바로크 양식의 특징 결합을 매만지고 다듬어 나간다. 배신과 포박의 1부(1~20번 트랙), 바흐와 시인 브로케스의 수난사가 담긴 2부(21~68번 트랙)는 각각 37분과 77분.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이 함께 한다.

– 공중에서 내려다본 장엄한 규모의 뉘른베르크 성당의 바닥에는 십자 모양의 무대가 놓여 있다. 이 영상물의 큰 특징은 이 무대를 중심으로 성악가들의 무대 퍼포먼스를 통하여 위력 있고 드라마틱한 '요한수난곡'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연주 중간에 보이는 로렌초 성당의 인테리어가 이 음악이 지닌 종교성을 더해준다.

– 막시밀리언 슈미트(테너)가 복음사가를, 타레크 나츠미(베이스)가 예수를 노래하고, 크리스티나 랜드사머(소프라노), 앙케 본퉁(알토), 틸만 리치디(테너), 크리쉬미를 스트라차냐크(베이스)가 함께 한다. 젊은 베이스 타레크 나츠미의 표정 연기가 인상적이다.

– 부클릿은 독일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가사지는 독일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오디오 옵션은 스테레오와 5.1 DTS 서라운드. 28분짜리 보너스 트랙에는 페테르 데이크스트라와 솔리스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BR Klassik 900516 **[DVD]**

바흐: B단조 미사곡

페테르 데이크스트라(지휘), 콘체르토 쾰른,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크리스티나 랜드사머(소프라노), 앙케 본퉁(알토), 막시밀리언 슈미트(테너), 안드레아스 볼프(베이스바리톤)

성악과 기악의 균형감과 무게로 빚은 21세기형 'B단조 미사곡'

무게 있는 해석의 바흐 'B단조 미사곡' 영상물이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로렌초 성당 실황으로, '요한 수난곡' 등에서 함께 해온 지휘자 페테르 데이크스트라, 콘체르토 쾰른,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그리고 솔리스트의 호흡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페테르 데이크스트라는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B단조 미사' 속의 신앙심과 바로크 양식의 특징 결합을 매만지고 다듬어 나간다. 총 길이 106분. 오디오 옵션은 스테레오와 5.1 DTS 서라운드. 로렌초 성당을 담은 압도적 광경이 음악의 흐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게끔 편집된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BR 클라식 레이블에서 나온 바흐 '요한 수난곡'(BR KLASSIK 900515)과 더불어 이 레이블이 자랑하는 무게 있는 해석의 바흐 'B단조 미사곡' 영상물이다. 독일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로렌초 성당 실황으로, 'B단조 미사곡'의 솔리스트진과 동일한 크리스티나 랜드사머(소프라노), 앙케 본퉁(알토), 막시밀리언 슈미트(테너)가 출연하며, 안드레아스 볼프(베이스바리톤)가 새 얼굴로 합류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연륜과 노련미가 매우 돋보이는 연주다. 지휘자 페테르 데이크스트라, 콘체르토 쾰른, 바이에른 방송합창단의 호흡도 동일하다.

– 페테르 데이크스트라는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B단조 미사' 속의 신앙심과 바로크 양식의 특징 결합을 매만지고 다듬어 나간다. 그는 키리에서 강렬하고 세련된 대위법을, 글로리아와 상투스의 시작부에서는 폭발하는 우주적 기쁨을, 아뉴스 데이에서는 친밀감과 따사로운 애정을 느끼게 한다. 원전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들의 하모니와 음향은 맑고 윤택하다. 연주 중간에 보이는 로렌초 성당의 내부 장식과 회화가 음악이 지닌 종교성을 배가시킨다. 페테르 데이크스트라가 유지하는 성악과 관현악의 뛰어난 균형감,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랜드사머와 알토 앙케 본퉁이 더해주는 중후한 무게가 잘 어울리는 연주다.

– 부클릿은 독일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가사지는 라틴어 · 독일어로 구성되어 있다. 오디오 옵션은 스테레오와 5.1 DTS 서라운드이다. 로렌초 성당을 담은 압도적 광경이 음악의 흐름과 너무 잘 어울리도록 편집된 수작의 영상물이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8208 [DVD]
C Major 738304 [Blu-ray]

2015년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극장의 브루크너 교향곡 6번 실황 브루크너 해석의 황태자 틸레만의 교향곡 6번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브루크너 해석의 황태자 틸레만의 교향곡 6번

2015년 9월,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극장 실황 영상물이다. 유니텔 클라시카를 통해 틸레만은 뮌헨 필과 브루크너 교향곡 4번 · 7번은 물론, 2012년에 취임한 469년 전통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함께 교향곡 4번 · 5번 · 8번 · 9번을 쏟아내고 있다. 브루크너의 세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틸레만의 자세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푸르트벵글러, 클렘페러 등의 독일계 지휘자들이 남긴 유산의 무게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후예의 브루크너가 궁금하거나, 이미 이 시리즈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에게 서슴없이 추천하고 싶은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2015년 9월, 독일 젬퍼 오페라극장 실황 영상물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고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연주한 브루크너(1824~1896)의 교향곡 6번이다.

– 1548년 창단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베버 · 바그너에 이어 20세기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67년간 음악감독을 맡은, 이른바 '살아있는 서양음악사'로 불리는 악단이다. 2012년부터 독일 정신의 계승자로 불리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수석지휘자로 취임해 469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한스 리히터부터 푸르트벵글러, 오토 클렘페러 등 독일계 지휘자가 연주하는 독일악단의 특정 사운드가 틸레만에게서도 들린다. 1악장 마에스토소는 시종 흐트러짐이 없을 정도로 강건하면서도 유연하고(16:00), 2악장 아다지오는 정성스러울 정도로 부드럽고(17:58), 3악장 스케르초는 차분하면서도 진취적이고(8:27), 4악장 피날레는 화려한 외형적 효과를 노리면서도 알차다(14:32). 이처럼 브루크너의 음악 세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틸레만의 자세는 훌륭하다.

– 유니텔 클라시카를 통하여 틸레만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 7번(뮌헨 필), 4번 · 5번 · 8번 · 9번(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등을 쏟아내고 있다. 연주마다 극장의 컨디션과 시차가 있지만 틸레만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소리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의 변치 않는 해석과 꿋꿋한 자세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이 영상물을 적극 권한다.

– 음악과 영상의 조화도 일품. 특히 관악 독주의 시작을 잡아내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재빠르며 영상에 더욱더 집중하게 한다. PCM스테레오/DTS 5.0/서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 틸레만과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젬퍼 오페라극장의 관객석에 앉아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C Major 738008 [DVD]
C Major 738104 [Blu-ray]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마티아스 괴르네(바리톤), 마티스 힌터호이저(피아노), 윌리엄 켄트리지(미술영상)

'겨울나그네'에 한 획을 그은 목소리와 영상의 콜라보레이션!

괴르네는 '겨울 나그네' 음반만 세 번 발매했을 만큼 이 곡에 있어서 독보적 존재다. 이 영상물은 괴르네의 노래, 세계적 미술작가 켄트리지가 만든 24개의 이미지와 영상이 무대에 펼쳐지며 만드는 환상적 무대를 담고 있다. 1080i의 고해상도로 인해 괴르네의 표정은 물론 무대의 배경을 다채롭게 채우는 켄트리지의 영상도 생생히 볼 수 있다. 2016년 롯데콘서트홀 개관 기념 공연에서 감동 받은 팬들에게 보너스 트랙의 다큐멘터리(53분 분량)는 내한 공연의 감동을 반추하는 순간을 제공할 것이다. 영상에는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보조자료]

– 프랑스 악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빈 페스티벌 등에서 2014년 초연되며 화제를 모았던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영상물이다.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와 201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음악감독을 맡을 피아니스트 마티스 힌터호이저, 그리고 드로잉 · 영화 · 연극 · 오페라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미술가 윌리엄 켄트리지의 미술영상을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이다. 이 영상물은 세 사람을 '슈베르트를 위한 트리오'로 표현한다.

– 마티아스 괴르네는 '겨울 나그네' 음반만 세 번 발매했을 만큼 독보적 존재다. 이 영상은 괴르네의 노래와 켄트리지가 만든 콜라주, 영화, 몽타주,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된 24개의 이미지와 영상이 펼쳐내는 환상적 조우를 통해 '겨울나그네'를 새롭게 보고 듣는 경험을 제공한다.

– 켄트리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쇼스타코비치 '코',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모차르트 '마술피리' 등 오페라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하여 최고 권위의 갤러리 전시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다. 켄트리지의 이미지와 영상은 사랑을 잃은 청년의 마음을 그린 빌헬름 뮐러의 시와 이를 노래하는 마티아스 괴르네의 목소리를 더욱 시적이고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1080i의 고해상도로 인해 괴르네의 생생한 표정은 물론 무대의 배경을 다채롭게 채우는 켄트리지의 영상미술품을 생생히 느낄 수 있으며, 오디오는 PCM스테레오다. 자막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다.

– '겨울나그네'는 2016년 롯데콘서트홀 개관 기념 공연으로 국내 팬들에게 찾아온 바 있다. 보너스 트랙으로 삽입된 다큐멘터리는 바리톤과 현대미술가가 슈베르트 가곡을 다리 삼아 서로 교감하기까지 느낀 바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이들의 심도 있는 얘기들은 공연을 보았던 국내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의 묘미를 선사할 것이다. 자막은 한국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되어 있다.

C Major 738808 [2DVDs]
C Major 738904 [Blu-ray]

구스타보 산사노의 '카르멘. 마키아', 페드로 루이즈 '클럽 하바나'

발레 히스패니코

스페인의 열정, 라틴아메리카의 매력이 담긴 창작 발레

히스패닉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과 그 후손을 뜻한다. 1970년에 설립된 발레 히스패니코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문화를 발레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영상물은 'Lincoln Center at the Movies' 시리즈의 하나로 구스타보 산사노가 안무한 '카르멘. 마키아'(2012)와 페드로 루이즈의 '클럽 하바나'(2000)가 들어 있다. '카르멘. 마키아'에선 플라멩코를 비롯해, 파소도블이라 불리는 스페인의 전통춤과 발레, 비제의 '카르멘'이 조우가 멋들어지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음악은 '클럽 하바나'의 무용수들의 몸짓을 흠뻑 적신다.

[보조자료]

– 1970년에 설립된 발레 히스패니코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발레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09년 8월에 부임한 예술감독 에두아르도 빌라로가 발레 히스패니코를 이끌고 있다.

– 이 영상물은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 뉴욕 시티 발레단의 실황 영상을 감독 · 제작하는 'Lincoln Center at the Movies' 시리즈의 하나로 발레 히스패니코의 두 작품이 들어가 있다.

– '카르멘. 마키아'는 구스타보 라미레즈 산사노가 2012년에 안무한 작품으로 비제가 작곡한 '카르멘'의 음악을 수정 · 차용했다. 70분 분량으로 스페인의 전통춤인 플라멩코와 파소도블(Paso Doble)의 요소가 녹아들어가 있는 창작발레다. 우리에게 플라멩코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파소도블은 스페인 투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성난 황소와 투우사의 결투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독특한 춤으로, 상당히 강렬하고 선정적이다. '카르멘. 마키아'의 독특한 것은 무대디자인과 의상이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가 즐겨 사용하던 흑 · 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붉은색으로 상징되던 카르멘과는 사뭇 다른 캐릭터를 구현했다.

–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팬이라면 함께 수록된 '클럽 하바나'에 관심 가져도 좋다. 하바나는 쿠바의 수도. 2000년에 페드로 루이즈가 안무한 이 작품은 맘보, 차차차, 볼레로, 룸바, 콩가 등 쿠바 재즈의 리듬으로 가득하며 농염한 여성무용수의 몸짓과 열정적인 남성 무용수가 일구는 2인무 커플들이 등장한다. 동영상은 약 20분.

– 오디오 옵션은 PCM 스테레오/DTS 5.0이다. 보너스 트랙인 '무대 뒤에'는 8분 30초 분량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자막을 갖췄다. '카르멘'의 타이틀 롤인 킴벌리 뵈이식과 돈 호세 역의 크리스토퍼 블룸, 두 작품의 안무를 맡은 구스타보 라미레즈 산사노와 페드로 루이즈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C Major 739608 [DVD]
C Major 739704 [Blu-ray]

2016년 두다멜과 LA필하모닉의 '별빛 아래의 탱고'

구스타보 두다멜(지휘),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앙겔 로메오(기타), 세스 아사라나우(반도네온),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탱고)

두다멜의 지휘봉이 춤추는 여름밤의 탱고

2016년 8월, 미국 할리우드 볼에서 구스타보 두다멜과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펼친 '별빛 아래 탱고' 공연이다. 피아졸라 '탱가조', 기타리스트 앙겔 로메오 협연 랄로 쉬프린의 기타 협주곡, 지나스테라 '에스탄시아의 4개의 춤곡' 그리고 반도네온과 탱고가 함께 하는 피아졸라의 '천사의 죽음' '아디오스 노니노' '망각' '리베르탱고'가 들어가 있다.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공연은 총 83분. 19분의 보너스 트랙은 탱고에 관한 두다멜, 쉬프린, 로메오의 인터뷰(자막은 독일 · 프랑스 · 스페인)가 들어가 있다.

[보조자료]

– 베르디 레퀴엠, 존 윌리엄스 갈라, 탱글우드 실황, 링컨 센터 액 더 무비 프로젝트 등을 놀라운 화질의 영상과 오디오로 담고 있는 C major의 시리즈는 우리를 늘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8월 미국 할리우드 볼에서 있었던 구스타보 두다멜과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펼친 실황 공연으로, 제목은 '별빛 아래 탱고'.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가조', 기타리스트 앙겔 로메오와 함께 하는 랄로 쉬프린(b.1932)의 기타 협주곡, 알베르토 지나스테라 '에스탄시아의 4개의 춤곡'이 들어가 있다. 2009년, 28세의 나이로 LA필하모닉의 역대 최연소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두다멜의 실험과 대중에게 다가가는 행보는 거침없다. 두다멜을 놓치기 싫은 LA 필하모닉은 그의 임기를 악단이 100주년을 맞는 2018~2019 시즌까지 늘려놓은 상태.

– 두다멜의 지휘봉이 멈출 때마다 여름밤을 수놓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성이 현장의 생생함을 더한다. 세스 아사라나우의 반도네온과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무용수들의 춤이 함께 한 피아졸라의 '천사의 죽음' '아디오스 노니노' '망각' '리베르탱고'에 이르면 할리우드 볼은 흥분의 도가니로 바뀐다. 1080i의 초고화질의 영상은 블루레이 마니아들이 탐낼만하고, PCM스테레오/ DTS-HD 5.1 오디오 옵션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공연은 총 83분. 19분의 보너스 트랙은 탱고에 관한 두다멜(약 6분), 랄로 쉬프린(약 7분), 기타리스트 앙겔 로메오(약 6분 30초)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다. 자막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다.

[추천-같이 보면 좋은 영상물]

2016년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한여름 밤의 갈라 (UNITEL CLASSICA 2072938) :
유타카 사도(지휘),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 올가 페레티아트코(소프라노), 브라이언 터펠(바리톤),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C Major 739408 [2DVDs]
C Major 739504 [Blu-ray]

2016년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실황
베르디: 가면무도회

요하네스 에라트(연출), 주빈 메타(지휘),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비오트르 베챠와(리카르도), 안야 하르테로스(아멜리아), 조지 페틴(레나토), 오카 폰 데어 담라우(오스카)

'테너를 위한 베르디의 오페라'를 접수한 테너의 열연!

2016년 주빈 메타가 80살 생일 기념으로 8년 만에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으로 돌아와 지휘한 의미 있는 공연이다. 베르디의 작품들 중 '테너의 오페라'로 손꼽히는 이 오페라의 주인공 리카르도 역을 맡은 테너 표트르 베찰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빛색깔과 선이 굵은 연기력으로 완벽한 리카르도를 구사한다. '운명의 힘'에서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의 열연으로 명성을 날렸던 아멜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야 하르테로스도 이 영상물의 매력도를 높인다. 요하네스 에라트는 감각적이며 초현실적인 조명을 이용하여 보는 맛을 더했다. 성악진과 오케스트라의 밀도를 높여 착착 감기는 탄력감으로 밀고 나가는 메타의 지휘 역시 일품.

[보조자료]

– 2016년 주빈 메타가 80살 생일 기념으로 8년 만에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으로 돌아와 지휘한 의미 있는 공연이다. 독일의 유력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지로부터 "공연은 음악적으로 꿈만 같았다"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 총독 리카르도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관이자 친구인 레나토의 아내 아멜리아를 사랑한다. 상관과 아내의 관계를 알아차린 레나토를 자신이 밝혀내려던 음모에 오히려 자신이 가담하게 되고 결국 가면무도회에서 리카르도를 칼로 찌르나,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의 결백과 레나토의 사면을 선언하며 숨을 거둔다.

– '가면 무도회'는 베르디의 중기 작품으로, 그의 작품들 중 보기 드물게 '테너의 오페라'로 손꼽힌다. 리카르도 역을 맡은 테너 표트르 베찰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음빛색깔과 선이 굵은 연기력으로 완벽한 리카르도를 구사한다. 2016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파우스트'에서 타이틀롤을 기억하는 이라면 베찰나의 전성기에 더해질 이 영상물을 소장하기를 적극 권한다. 2014년 베르디 '운명의 힘'의 레오노라 역을 맡아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 열연을 펼치며 명성을 날렸던 아멜리아 역의 소프라노 안야 하르테로스는 베르디 특유의 강렬함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 연출을 맡은 요하네스 에라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불륜과 음모,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초현실적인 무대 연출로 풀어낸다. 자막은 한국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으며, 오디오 옵션은 PCM 스테레오/DTS 5.1로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객석에 앉아 있는 듯한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Columna Musica

www.columnamusica.com

Columna Musica 1CM0257 [2DVDs]

COLUMNA MÚSICA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콜렉션
'Victoria a Barcelona'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소프라노), 마누엘 가르시아 모란테(피아노)

영상으로 만나는 노래하는 보석, 앙헬레스

몽세라 카바예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로 손꼽히는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의 1989년 · 1992년 스페인 공연 실황으로, 말년에도 목소리가 거의 변하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스페인 · 라틴 아메리카계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에서 출시된 로스 앙헬레스 컬렉션의 '핵'을 이루는 영상물로 1DVD에는 29곡, 2DVD에는 14곡과 3곡의 보너스 트랙이 수록되어 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스페인 작곡가들의 노래를 통해 스페인 특유의 음악적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영상물만의 매력이다.

[보조자료]

– 마리아 칼라스,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조안 서덜랜드, 몽세라 카바예 등과 함께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소프라노로 꼽히는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1923~2005). 그녀는 카바예의 10년차 선배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량이 적은 만큼 노래가 섬세하고 여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바예는 목소리가 중후하게 익어간 반면, 앙헬레스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스페인 · 라틴 아메리카계 음악가들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콜롬나 무지카 레이블에서 로스 앙헬레스 컬렉션이 출시되고 있다. EMI CLASSICS를 통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던 그녀의 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두 장의 DVD로 구성된 이 영상물은 앙헬레스가 고국에서 가진 1989년과 1992년 실황을 각각 담고 있으며, 말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를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화질이 미흡한 대목도 있지만 감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음질 면에서는 그녀가 노래하던 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현장의 모습과 열기를 생생히 재현한다. 앙헬레스는 22세 때 '피가로의 결혼'의 백작부인으로 데뷔했으나 국제적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24세 때인 1947년 제노바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부터였다. 1950년 파리, 뮌헨 등지에 데뷔했고 같은 해 카네기 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지며 뉴욕 데뷔를 기록했다. 1961년에 이르러 바이로이트까지 입성했다. 당시 맡았던 '탄호이저'의 엘리자베트, 그리고 메트 오페라에서의 '오텔로'의 데스데모나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오페라 레퍼토리 역시 상당히 넓다.

– **1DVD는** 1989년 5월 19일, 스페인 카탈라냐에서의 리사이틀 실황이다. 앙헬레스는 스페인의 가요를 비롯하여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바도, 그라나도스, 파야, 모란테, 몸포우, 에드아르드 톨드라, 알베니즈, 몽트살밧제 등이 작곡한 스페인 특유의 향내가 배어 있는 곡들을 노래한다. 그녀의 무대를 통해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적 유산을 만날 수 있다. 총 29개의 트랙 중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오페라 '카르멘'의 한 대목을 부른다. '클라벨리토스'를 끝으로 관객들을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매 곡이 끝날 때마다 무대로 날아든 꽃이 쌓여 있는 광경 속에서 자국의 음악가를 향한 관객의 열광과 찬사를 느낄 수 있다. 피아노 반주는 스페인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마누엘 가르시아 모란테가 맡았다. **2DVD는** 1992년 4월 24일, 스페인 리우에 위치한 대극장 실황으로 총 1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앙헬레스는 스페인이 낳은 작곡가 카스텔, 마누엘 플라, 그라나도스, 몽트살밧제, 페드럴, 모란테 등과 슈베르트의 '숭어', 비제의 '카르멘'의 아리아 등을 노래한다. 이 역시 1DVD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노래를 통해 스페인의 음악적 유산과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피아노 반주는 스페인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마누엘 가르시아 모란테가 맡았다. 2DVD에는 보너스 트랙(총 3트랙)이 수록되어,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현장에서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43쪽 분량의 부클릿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스페인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의 회상이 담긴 글(스페인어 · 영어)과 가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63 [2DVDs]
Dynamic 57763 [Blu-ray]

2015년 플랑드르 오페라극장의 로시니 '아르미다'

알베르토 제다(지휘), 플랑드르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마리암 클레망(연출), 율리아 한센(무대미술), 아르미다(카르멘 로메우), 에니 스칼라(리날도 역/테너), 로버트 맥퍼슨(제르난도 역/테너), 다리오 슈뭉크(고프레도 역/테너) 등

로시니의 벨칸토 오페라와 이를 위해 태어난 듯한 소프라노의 만남

2015년 11월, 벨기에 플랑드르 오페라에서 초연된 프로덕션 영상물이다. 십자군의 지휘관 리날도는 아르미다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적군이다. 고뇌하던 그녀가 결국 선택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 여러 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연출선이 재미를 더해주는 프로덕션으로, 십자군은 망토와 갑옷을, 혹은 축구선수 복장을 입고 등장하고, 승리의 기쁨에서 트로피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무엇보다 여성 연출가 마리암 클레망은 이 프로덕션의 힘을 여섯 명의 남성 성악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아르미다 역의 소프라노 카르멘 로메우에게 모은다. 1080i60의 초고화질 영상, PCM 스테레오와 DTS 5.1의 오디오 옵션,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보조자료]

– 벨기에 북부에 위치한 플랑드르 오페라에서 선보인 로시니의 '아르미다' 영상물로 2015년 11월에 초연된 프로덕션이다. 플랑드르는 벨기에가 독립하기 전 네덜란드 지배하에 있던 곳으로,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따라서 플랑드르 오페라는 불어권을 대표하는 오페라극장이지만 다양한 프로덕션을 수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 아르미다는 이탈리아의 시인 토르콰토 타소(1544~1595)의 서사시 '구원된 예루살렘'을 원작으로, 11~13세기 십자군 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슬람 국가의 지배하에 있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 십자군 지휘관 리날도가 여성마법사인 아르미다에 용맹하게 맞서 싸워 그녀를 물리치고 잡혀 있던 연인 알미레나를 구출해 고국으로 귀향한다는 내용이다.

– 로시니(1792~1868)는 그만의 벨칸토 스타일로 아르미다의 캐릭터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아르미다'에선 남성 장군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아르미다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녀는 우아한 미녀로 자신을 꾸미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진을 친 십자군 진영에 침입한다. 그 후 십자군 사령관 고프레도는 전투를 위해 리날도를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하고, 결국 리날도와 아르미다의 접전이 벌어진다. 내심 리날도를 사모하고 있던 아르미다는 적으로서의 적개심과 이성으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결국 승리를 선택한다.

– 프랑스 태생의 여성 연출가 마리암 클레망은 이 프로덕션의 힘을 여섯 명의 남성 성악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아르미다 역의 소프라노 카르멘 로메우에게 모은다. 스페인 태생으로 이국적인 마스크와 안정된 고음처리로 150분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카르멘 로메우는 국내에 상영되어 인기를 모았던 스페인 발렌시아 레이나 소피아극장 프로덕션 '라 보엠'의 뮤제타 역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 17세기 카발리의 작품부터 헨델 · 라모 · 모차르트 · 로시니 · 도니제티는 물론 리게티 · 필리프 위렐 등 20세기 현대오페라 연출에도 일가견이 있는 마리암 클레망은 다양한 의상을 통해 여러 시간이 무대에 공존하며 혼재되는 독특한 연출을 보여준다. 아르미다는 인도의 전설에나 등장할 법한 여신의 옷을 두르고 나오기도 하며, 중세의 갑옷과 망토를 두른 십자군들은 축구장에서 맹세를 다지고, 어느 순간 축구선수 복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는 트로피가 등장하기도 한다.

– 1080i60의 초고화질 영상, PCM 스테레오와 DTS 5.1의 오디오 옵션은 오페라극장 관객석에 앉아 있는 듯한 음향 환경을 제공한다.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Dynamic 37753 [2DVDs]
Dynamic 57753 [Blu-ray]

메르카단테: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파비오 루이지(지휘), 이탈리아 국립교향악단, 클루지나포카 국립 합창단, 레오노르 볼리라(소프라노/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역), 안토니오 디 마테오(베이스/귀도 다 폴렌타 역), 아야 와키조노(메조소프라노/파올로 역)

우리가 모르던 비극오페라와 만나는 짜릿함!

2016년 제42회 발레 디트리아 여름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메르카단테(1795~1870)의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실황 영상물. 파비오 루이지가 이끄는 이탈리아 국립교향악단의 음악은 풍성하고 격정적이며,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연출과 무대의상 · 조명은 간결하면서도 역사적 상상력이 가득하다. 단테의 '신곡'을 비롯하여 많은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었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소프라노)와 청년 파올로(메조소프라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바지역할'의 일본 메조소프라노 와키조노의 카리스마가 인상적이다. 한국어 자막. 현장의 생생한 음질 또한 압도적이다.

[보조자료]

– 이탈리아 풀리아 지방의 마르티나 프란카에서 매년 열리는 발레 디트리아 여름 페스티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을 개발하여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영상물은 2016년 제42회 발레 디트리아 여름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메르카단테의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실황 영상물이다.

– 메르카단테(1795~1870)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개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인지도는 늘 낮은 상태다. 그래서 이 영상물은 메르카단테만의 진가를 재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 파비오 루이지가 이끄는 이탈리아 국립교향악단의 음악은 풍성하고 격정적이며, 피에르 루이지 피치의 연출은 간결하면서도 역사적 상상력이 가득하다. 연출 외에 의상과 조명을 담당한 피에르 피치는 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매끄럽게 가져간다.

–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리미니의 프란체스카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오페라만 해도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비롯하여 19종이다.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레오노르 볼리라/소프라노)는 귀도 다 폴렌타(안토니오 디 마테오/베이스)의 딸로, 단테의 '신곡'을 포함한 많은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귀도 다 폴렌타는 말라테스타 가문과 원수 지간이었지만, 화해를 하면서 프란체스카를 말라테스타 가문의 장남 지오반니 말라테스타와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다. 지오반니는 가문의 용감한 후계자였지만 못생겼다. 프란체스카가 결혼을 거부할 것을 안 귀도는 잘생긴 지오반니의 동생 파올로(아야 와키조노/메조소프라노)를 프란체스카에게 지오반니로 속였다. 프란체스카는 파올로와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서야 신랑이 지오반니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프란체스카와 파올로는 몰래 사랑을 나눴고 둘은 지오반니에게 들켜 죽임을 당한다.

– 총길이 200분. 부클릿은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 자막은 이탈리아어 ·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자막이다. 오디오 옵션은 PCM 2.0과 돌비 디지털 5.1.

Dynamic 37758 [DVD]

도니제티 : 올리보와 파스쿠알레

오퍼 알체미카(우고 지아코마치, 루이지 간기), 페데리코 사르델리(지휘), 라스칼라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코로 도니제티 오페라 합창단　브루노 타디아(올리보), 필리포 모라체(파스콸레), 로라 지오다노(이사벨라), 피에트로 아다이니(카밀로)

웃자! 도니제티로 크게 웃자!

2016년 이탈리아 도니제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극장에 오른 도니제티 '올리보와 파스쿠알레' 공연 실황이다. 1827년 세상에 나온 이 오페라부파는 일종의 징슈필(노래극)으로 도니제티의 웃음코드를 발견하게 한다. 부유한 상인 형제인 올리보의 딸이자 파스쿠알레의 조카인 이사벨라와 그녀의 연인 카밀로와의 사랑과 결혼을 방해하는 두 형제의 독특한 캐릭터가 인상적이다. 연출가 우고 지아코마치 · 루이지 간기의 컬러풀한 무대, 화려한 의상, 다소 과장된 연기, 속사포로 쏟아지는 대사들은 웃음을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총 분량은 151분이다.

[보조자료]

– 2016년 이탈리아 도니제티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극장에 오른 도니제티 '올리보와 파스쿠알레' 공연으로 도니제티 재단(Fondazione DONIZETTI)이 제작했다.

– 1827년 세상에 나온 '올리보와 파스쿠알레'는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 오페라부파를 통해 도니제티의 웃음 코드를 느낄 수 있으며, 중간마다 성악가들이 음악 없이 연극적 대사를 선보이는 징슈필이기도 하다.

– 이 작품에는 리스본 출신의 부유한 상인 형제 올리보와 파스쿠알레가 등장한다. 올리보의 딸이자 파스쿠알레의 조카인 이사벨라의 결혼은 이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손해 보는 장사이다. 이사벨라와 그의 연인 카밀로의 사랑과 결혼을 방해하는 두 형제의 다양한 웃음 코드로 가득 채워지는데, 두 사람 역시 완전히 다른 캐릭터이기에 그 재미가 배가된다. 이 프로덕션은 성악진의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재킷에는 연출가 우고 지아코마치와 루이지 간기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연출가의 미장센을 내세운 영상물임을 알 수 있다. 컬러풀한 무대, 화려한 의상, 다소 과장된 연기, 속사포로 쏟아지는 대사들은 이 작품이 뿌리를 두고 있는 오페라부파의 웃음 요소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 이사벨라의 아버지 올리보 역의 브루노 타디아는 다혈질 연기를 능숙하게 해낸다. 파스쿠알레 역의 필리포 모라체도 뛰어난 배우로 올비보의 노래와 연기에 흥을 돋운다. 이사벨라 역의 로라 지오다노는 카밀로와의 사랑과 심술궂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사랑하고 상처 입는 여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두 장의 DVD로 구성됐으며, 총 분량은 151분. 자막은 이탈리아, 영어, 프랑스, 독일어로 되어 있으며 오디오 옵션은 PCM 2.0/돌비 디지털 5.1이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4068 [2DVDs]

바흐: 바이올린 소나타 BWV 1014~1019,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 5번

프랑크 페터 침머만(바이올린), 엔리코 파체(피아노),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깊고 맑은 소리로 빚은 침머만의 바흐와 모차르트

1965년 독일 태생의 프랑크 페터 침머만은 고전, 낭만, 20세기 음악을 넘나드는 만능의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무엇보다 그의 바흐와 모차르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1DVD에는 바흐 바이올린 소나타 BWV1014~1019와 다큐멘터리 '바흐와 나'(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자막), 2DVD에 하이팅크 지휘/베를린 필과 함께 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1993년 로열 알버트홀)과 협주곡 5번(1994년 베를린 필하모니) 실황이 담겨 있다. PCM 스테레오/DD 5.1/DTS 5.1의 오디오 옵션을 타고 들리는 그의 바이올린 소리는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다.

[보조자료]

– 프랑크 페터 침머만의 바흐와 모차르트라면 그 어떤 의심도 하지는 않는 팬들이 반드시 소장해야 할 DVD이다.

– 1965년 독일 태생의 프랑크 페터 침머만은 5세 때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했으며 10세가 되던 해인 1975년에 두이츠부르크에서 데뷔무대를 가졌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그는 에센 폴크방 음대에서 발레리 그라도프를 사사했으며, 이 시기에 유겐트 무지치에르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 그가 고전과 낭만, 그리고 20세기 음악의 레퍼토리를 해석하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1998년 이래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와 꾸준히 연주를 하며, 하인리히 쉬프 그리고 크라스티안 자카리아스 등과 실내악 활동도 부지런히 이어가고 있다.

– 1DVD에는 바흐가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BWV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가 수록되었다. 2008년, 그와 꾸준히 호흡을 맞추는 피아니스트 엔리코 바체와 호흡을 맞춘 것이다. "만약 무인도에 가게 될 때 세곡만 가져가라면 바흐와 베토벤, 모차르트 작품을 선택할 것 같다"는 그의 바흐 해석은 진지하고도 신선한 사운드를 잃지 않는다. 무엇보다 PCM 스테레오/DD 5.1/DTS 5.1의 오디오 옵션을 타고 들리는 그의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다.

– 1DVD에 수록된 연주영상 외에 눈길이 가는 것은 '바흐와 나'라는 제목의 보너스 트랙이다. 침머만이 생각하는 바흐에 대한 해석을 읽을 수 있다. 침머만의 인터뷰와 1711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연주하는 바흐의 소나타(6곡)와 시벨리우스의 협주곡(1곡)이 교차되며 14개의 트랙을 일군다. 자막은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 2DVD에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 지휘/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1993년 로열 알버트홀)과 협주곡 5번(1994년 베를린 필하모니) 실황이 담겨 있다. 현악은 온화하고, 관악은 편안하게 가져가는 하이팅크의 흐름에 힘입어 20대 청년 침머만은 물 흐르듯 매끄러운 연주를 선사한다. 그 어떤 기교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의 차분한 매력이 돋보이는 연주다.

EuroArts 2061078 [DVD]

홀스트: 행성

바바라 윌리스 스위트(영상), 샤를르 뒤트와(지휘), 몬트리얼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론토 댄스 시어터 등

홀스트 '행성'에 현대무용, 수중무용, 피겨스케이트, 그리스신화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음악, 현대무용, 피겨스케이트, 그리스신화가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인 영상물이다. 어느 분야를 좋아하든 이 영상물을 택한다면 영상 속의 무대가 펼쳐내는 풍경과 상상력에 놀라게 된다. 관현악곡 '행성'은 총 7개의 행성과 신화를 담고 있다. 그리스신화 속의 포세이돈('해왕성'), 우라누스('천왕성'), 비너스('금성'), 머큐리('수성'), 마르스('화성'), 새턴('토성'), 주피터('목성')로 분장한 무용수들이 출연하고, 홀스트의 '행성'에 맞춰 연기와 춤 그리고 수중 무용을 선보이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묘미를 선보인다. 51분 동안 눈앞에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보조자료]

– 음악, 현대무용, 피겨스케이팅, 그리스신화가 구스타프 홀스트의 관현악곡 '행성'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인 영상물이다. 샤를르 뒤투와가 지휘하는 몬트리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행성'에 맞춰 몬트리얼 댄스 시어터의 주요 무용수들과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출연하고, 수중 무용까지 선보인다.

– 총연출을 맡은 바바라 윌리스 스위티는 마크 모리스의 안무와 요요 마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하나의 영상에 만나게 하여 클래식 음악계에 화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음악, 무용, 그리스신화, 피겨스케이트를 막론하고 이 영상물을 택한다면 영상물(1994년 제작)이 펼쳐내는 풍경과 상상력에 놀라게 된다.

– 관현악곡 '행성'을 구성하는 7개의 곡에는 태양계의 행성들에서 유래한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영상물 역시 7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 1트랙은 바다의 신 넵튠을 그린 영상으로, 홀스트의 '행성' 중 '해왕성'에 해당한다. 여성 무용수들의 수중무용이 인상적이다.

– 2트랙은 하늘의 신 우라누스('천왕성')를 담고 있으며, 빙판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2인무는 발레의 파드되만큼 아름답다. 이처럼 무용과 피겨스케이팅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사랑의 신 비너스('금성'), 신들의 전령 머큐리('수성'), 전쟁의 신 마르스('화성'), 농경신 새턴('토성'), 그리고 신들의 왕 주피터('목성')를 그리고 있다. 특히 머큐리의 민첩한 동작, 마르스의 지휘를 따르는 수십 군사들의 군무와 웅장함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매끄럽고, 무엇보다 음악이 지닌 리듬성과 선율의 흐름을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 총 분량 51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자막을 갖췄다.

EuroArts 2097018 [11DVDs]

The Great American Orchestras

미국의 저명한 5개 오케스트라

보스톤 심포니 교향악단, 시카고 심포니 교향악단, 뉴욕 필,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설적인 지휘자들이 놓칠 수 없는 명곡들을 연주한 영상물

[수록내용]

Disc #1 - Great American Orchestras:
Daniel Barenboim And The Chicago Symphony Orchestra

Disc #2 - Great American Orchestras:
Leonard Bernstein And The Boston Symphony Play Brahms

Disc #3 - Great American Orchestras:
Leonard Bernstein And The Boston Symphony Orchestra Play Liszt

Disc #4 - Great American Orchestras:
Pierre Boulez Conducts Modern Classics

Disc #5 - Great American Orchestras:
The Pyongyang Concert

Disc #6 - Great American Orchestras:
Ormandy Conducts Rimsky-Korsakov

Disc #7 - Great American Orchestras:
Ormandy Conducts Tchaikovsky And Mussorgsky

Disc #8 - Great American Orchestras:
Ormandy Conducts Stravinsky And Rachmaninov

Disc #9 - Great American Orchestras:
Ormandy Conducts Holst And Debussy

Disc #10 - Great American Orchestras:
Solti Conducts The Chicago Symphony Orchestra

Disc #11 - Great American Orchestras:
Welser-Möst Conducts Bruckner

Gramola www.gramola.at

Gramola 20001 **[2DVD, 2Blu-ray]**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집(1~10번)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미하엘 코르슈틱(피아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위한 젊은 혁명

풍부한 감성과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래몰라 시리즈에서 토마스 이른베르거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10번)을 녹음하여 4장의 CD로 출반(Gramola 99106 SACD)한 바 있다. 형식적인 완성도와 낭만의 자유로움이 어우러진 걸작의 녹음을 통해 그들의 연주모습과 영상이 아쉬웠다면 이 전집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영상물은 2장의 DVD와 2장의 블루레이로 되어 있다. 1DVD(1Blu-ray)에 베토벤 소나타 1~5번, 2DVD(2Blu-ray)에 소나타 6~10번이 담겨 있다. 옛 거장을 연상케 하는 이른베르거의 깔끔한 음색, 미하엘 코르슈틱의 섬세한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과 피아노 모두 대만족이다.

[보조자료]

– 독일에 그라모폰이 있다면 오스트리아에는 그래몰라 (Gramola)가 있다! 그래몰라 시리즈는 풍부한 감성과 최고의 사운드로 깊은 감동을 준다.

– 1985년 태생의 토마스 이른베르거는 9살에 모차르테움 음악원에 입학. 이후 린루크너 대학에서 수학 후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로 각광 받고 있다.

– 이른베르거는 그래몰라에서 베토벤(1770–1827)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1–10번)을 녹음하여 4장의 CD로 출반(Gramola 99106 SACD)하기도 했다. 형식적인 완성도와 낭만의 자유로움이 어우러진 걸작의 녹음을 통해 그들의 연주모습과 영상이 아쉬웠다면 이 영상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 이 영상물의 특징이라면 적극적인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의 표정과 연주를 섬세하고 집중적으로 잡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독특하게 2장의 DVD와 2장의 블루레이로 되어 있다. 1DVD(1Blu-ray)에 소나타 1–5번, 2DVD(2Blu-ray)에 소나타 6–10번이 수록되었다. 부클릿은 독일어와 영어.

– 이른베르거는 옛 거장을 연상케 하는 깔끔한 음색과 자신감 있는 유연한 보잉을 자랑한다. 이른베르거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에 함께 했던 미하엘 코르슈틱의 피아노는 굳이 바이올린의 팬이 아니어도 이 영상물을 선택하게 한다. 섬세하고, 때로는 바이올린을 능가하는 선율미가 압도적이다. 녹음의 포커스는 두 사람의 또랑또랑한 선율선을 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14D **[DVD]**

로열발레단 '엘리자베스'

윌 턱케트가(안무), 앨러데어 미들톤(대본), 마틴 예이츠(음악감독 · 지휘), 다비드 켐스터(바리톤), 라파엘 월피쉬(첼로), 제나이더 야노프스키(엘리자베스), 카를로스 아코스타

발레 · 연극 · 음악의 절묘한 하모니로 그려낸 엘리자베스 여왕의 희로애락

영국이 자랑하는 로열발레단의 간판스타 제나이더 야노프스키가 엘리자베스 역을 맡았고,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상대역으로 함께 한다는 것 외에도 이 영상물을 선택할 이유는 많다. 두 무용수가 빚어내는 2인무 외에 배우들은 나래이터와 극중 인물로 등장하여 무용과 어울리는 연극적 장면을 연출하는가 하면, 바리톤과 첼로로만 진행되는 음악은 엘리자베스의 화려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쓸쓸했던 삶을 상징하며 귓가를 잡아끈다. 무용 · 연극 · 음악애호가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싶을 정도로 세 장르는 어우러지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일대기와 내면의 풍경을 그려낸다. 총 길이 93분. 한 여인의 사랑과 기쁨과 슬픔이 면면히 흐른다.

[보조자료]

–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국모와 같은 존재다. 영국 로열발레단의 '엘리자베스'는 제목 그대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삶과 사랑을 다룬 2인무 중심의 발레 작품으로 영국 로열발레단의 2016년 1월 8일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2013년 초연 이후 이 작품은 영국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 작품 속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4년간 영국 및 아일랜드 왕국을 다스렸다. 열강들의 위협, 급격한 인플레이션, 종교 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던 16세기 초반 당시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조국을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 로열 발레단의 객원수석 캐릭터 솔리스트이자 안무가로 활동 중인 윌 턱케트가 안무한 작품으로 엘리자베스 역은 로열발레단 수석 제나이더 야노프스키, 상대역에는 쿠바 출신의 세계적인 발레리노이자 로열발레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함께 한다. 야노프스키의 드라마틱한 연기와 우아한 자태는 당시 궁정여인의 고귀한 뉘앙스를 과감 없이 보여주며, 아코스타의 열정적인 움직임과 표현력은 그녀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 2인무의 이 작품이 기존 창작발레와 다른 점은 연극, 음악의 구성이 남다르다는 점이다. 야노프스키, 아코스타의 무용과 함께 하는 3명의 배우는 엘리자베스의 일대기를 설명하고 무용수들 사이에 등장하여 역사의 한 장면을 재연하는가 하면 엘리자베스의 내면을 대사로 대신 표현하기도 한다. 대본은 영국 작가 · 오페라대본가 앨러데어 미들톤이 맡았다.

– 마틴 예이츠가 감독과 지휘를 맡은 음악 역시 독특하다. 바리톤과 첼로로만 진행되는 음악은 엘리자베스의 화려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쓸쓸했던 삶을 상징하는 듯하다.

– 로열발레단 간판스타 무용수들의 2인무, 셰익스피어의 연극적 전통이 느껴지는 무대와 배우들의 열연, 발레와 연극적 대사에 어울리는 첼로와 바리톤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제 각각의 묘미를 발산하기 때문에 무용, 연극, 음악 애호가 모두에게 적극 권장하는 영상물이다. 총 길이 93분. 오디오 옵션은 스테레오와 서라운드를 택할 수 있다.

EuroArts 4K Ultra HD

www.euroarts.com

EuroArts 2072951 [4K]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루카 피사로니(알마비바 백작), 아네트 프리취(알마비바 백작부인), 마르티나 얀코바(수잔나), 피가로(아담 플라체트카), 마르가리타 그리츠코바(케루비노), 앤 머레이(마르첼리나) 단 에팅거(지휘), 스벤-에릭 베히톨프(연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엔나 국립오페라 합창단

영국 디자이너들에게 무대와 의상을 맡겨 1920년대 영국 대저택의 구석구석을 2층 구조물의 시트콤 드라마 무대처럼 꾸며 오리지널 희곡이 가지는 극적 요소를 부각시킨 베히톨프의 인상적인 연출! 작곡 의뢰없이 모차르트 스스로가 좋아서 오페라를 만들고 초연 지휘를 했듯이 직접 피아노 포르테를 치면서 모차르트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투영하는 지휘자 댄 에팅거! 슈퍼스타가 없이도 오페라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피사로니, 프리취, 얀코바, 플라체트카, 그리츠코바의 등의 완벽한 무대 퍼포먼스!

"희곡와 음악의 완벽한 결합!" – 모차르트 하우스, 201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음악이 먼저다"라는 모차르트의 철칙이 유독 이 오페라에서 더 느껴지는 것은, 작곡 의뢰를 받지 않고 모차르트 스스로가 좋아서 만든 유일한 오페라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의 프리랜서 작곡가였던 모차르트는 대부분의 작품을 의뢰받아 만들었지만, 피아노 협주곡만은 자신이 좋아서 작곡했다. 그래서인지, 피아노 포르테 연주를 겸하면서 지휘를 하는 댄 에팅거의 모습에서 모차르트의 모습이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다.

[보조자료]

– '피가로의 결혼'을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비야의 이발사'이다. 두 작품 모두 보마르셰가 쓴 희곡이 오리지널이고,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이어지는 내용이다. 평민으로 태어난 재능 많은 야심가였던 보마르셰(1732~1799)의 눈에 비친 당시 귀족계급의 사회상은 더 없이 훌륭한 희곡의 소재였다. 신분 상승을 위해 외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이 좌절되면서 보마르셰는 희곡에 눈길을 돌렸다. '세비야의 이발사'(1775)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귀족들에 대한 조롱이 '피가로의 결혼'(1784)에서는 대담하고도 직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루이16세의 지시에 의해 몇 차례 대본이 수정되어 한차례 왕실 공연을 거친 뒤에야 대중 공연을 허락받았던 이 희곡에 대해 후일 나폴레옹은 "이 작품엔 이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로 술회했다. 2년후 작곡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1786)은 천재적인 대본가 로렌초 다 폰테의 도움으로 속전속결로 검열을 마치고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 201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모차르트 하우스에서의 실황공연을 담은 이 영상물의 가장 큰 매력은 원작의 연극적 요소와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 1920년대 영국의 대저택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 영국 디자이너 알렉스 이일스, 마크 바우만에게 각각 무대와 의상을 맡긴 베히톨프의 연출은 오페라의 희극적 풍자속에 속고 속이고 또 속이는 아쓸아쓸한 극적 재미를 속이 꽉 찬 버라이어티 선물상자에 담아낸 것 같다. 특히 막이 바뀔 때마다 대저택의 이곳저곳을 분할화면으로 보여주는 무대세트는 시트콤 드라마의 공개촬영 모습을 보는 듯 부드럽고 빠른 장면 전환을 보여준다.

– 슈퍼스타 출연진이 없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캐릭터들이 서로 기량을 뽐내야 하는 작품에서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밸런스가 무너져 극적인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모차르트 오페라에 정통한 루카 피사로니, 마르티나 얀코바, 아담 플라체트카 등과 이외의 주요 배역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 냄으로써 협연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걸작이다.

Aurora LP

www.aurora.ws

KING 1001LP [2LP] **독일제작**

오디오파일 음반 마스터링의 명스튜디오 독일 Pauler Acoustics studio에서 SACD re-mastering, SONY Germany - SACD제작

Audiophile 애호가와 현악애호가들에게 적극추천!

게리카 오디오파일 셀렉션
Londonderry Air, 바흐: 'G선상의 아리아' 외

게리 카(더블베이스), 하몬 루이스(피아노 · 오르간)

당신의 스피커를 울릴 '오디오애호가를 위한 선곡집'

세계 최고의 더블베이시스트 중 게리 카(b.1942)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선사하는 저음역의 마술은 국내 음악애호가들과 그들의 심금을 얼마나 울렸던가. 보스턴심포니 상임지휘자였던 세르게이 쿠세비츠키로부터 물려받은 1611년산 아마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니 보이'와 '썸머타임', 림스키 코르사포크 '인도의 노래', 오르간과 함께 하는 알비노니 '아다지오', 포레 '꿈을 따라서',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등 유명한 소품 13곡을 담은 앨범이다. 저음역의 깔끔한 맛으로 당신의 스피커를 울린다.

Grand Piano LP

www.grandpianorecords.com

GP752LP

필립 글래스: 엣센셜 – 탄생 80주년 기념 헌정 음반

니콜라스 호르밧(피아노)

반복구조에 입각한 글래스의 다양한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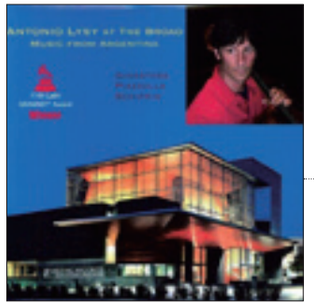
20세기 작곡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사람이자,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자 필립 글래스의 탄생 80주년 기념 헌정음반이다. 피아노 음악 전문 레이블 Grand Piano에서 발매되었던 음반들을 모아 기념 Vinyl로 제작하였다. 반복구조에 입각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준다.

*Free Digital Album Download!

Yarlung Records

www.yarlungrecords.com

얄룽레코드(Yarlung Records)는 로스엔젤레스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얄룽레코드의 이름은 티베트 문명의 발상지이자 티베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얄룽대협곡'에서 따왔다. 레이블의 로고에는 얄룽대협곡 안에 위치한 티베트에서 가장 오래된 왕궁, '융부라캉 성'의 모습을 넣었다. 하늘과 땅의 접점에 솟아있는 융부라캉 성은 천지와 감응하는 인간의 모습인 동시에 삼라만상을 아우르는 음악의 위대한 힘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로스엔젤레스 소재 유명 공연장(디즈니 콘서트홀, 제게르슈트롬 콘서트 홀, 브로드 스테이지 등)에서 연주된 연주자들의 녹음을 실황 그대로 구현하는 고해상도의 음반과 디지털 음원은 레이블의 이름과 로고에 담긴 '얄룽'의 이상과 닿아있다. 압도적인 선명도를 자랑하는 얄룽레코드 만의 특별한 녹음은 연주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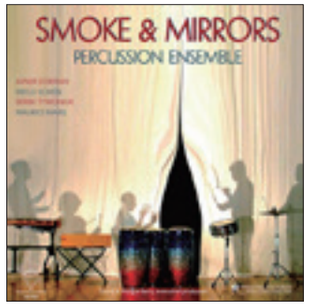
YAR95968–517V
[33 1/3 RPM 180g Vinyl LP]

아르헨티나의 음악들

안토니오 리지(첼로), 캐피털 앙상블(연주)

그윽한 반향 속에서 메아리치는 열정과 우수

항구와 팜파스를 배경으로 탄생한 아르헨티나의 음악은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피아졸라와 히나스테라의 작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는 본 음반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안토니오 리지의 열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사랑해요, 아르헨티나(Te Amo, Argentina)'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2010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수상작인 랄로 시프린의 '팜파스'(마지막 트랙)는 음반의 백미이다. 안토니오 리지의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연주를 훌륭하게 뒷받침하는 그윽한 반향 속에서 열정과 우수는 한껏 메아리친다.
***랄로 시프린의 '팜파스'(10번 트랙), 2010년 라틴 그래미 어워드 수상**



YAR17255–195V
[45 RPM 180g Vinyl]

스모크 & 미러즈(Smoke & Mirrors)

스모크 & 미러즈 타악기 앙상블(연주)

영혼을 정화하는 정중동의 울림

단순한 듯 느껴지지만 리듬과 피치, 음색이 교차되며 빚어내는 강렬한 반향은 타악기 앙상블 특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모크 & 미러즈 타악기 앙상블은 스티브 라이히, 에릭 휘태커, 토루 다케미츠 그리고 라벨 등의 타악기 혹은 타악기 편곡 작품을 음반에 담았다. 절묘한 앙상블을 통해 펼쳐지는 깊고 고요한 울림, 역동적인 움직임은 명징한 음질과 너른 스케일을 갖춘 얄룽 레코드의 녹음을 통해 한층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영혼을 정화하는 피안의 파동은 산방(山房)의 명상을 떠오르게 한다. 멋지고 아름다운 녹음이다. 필청을 권한다.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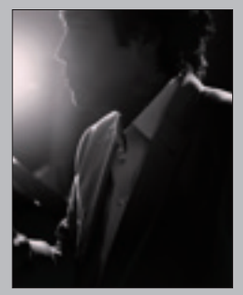
'겨울나그네'에 한 획을 그은 목소리와 영상의 콜라보레이션!

슈베르트 : 겨울나그네

마티아스 괴르네(바리톤), 마티아스 힌터호이저(피아노), 윌리엄 켄트리지(미술영상)

DVD C major 738008 Blu-ray C major 738104

괴르네는 '겨울 나그네' 음반만 세 번 발매했을 만큼 이 곡에 있어서 독보적 존재다.
이 영상물은 괴르네의 노래, 세계적 미술작가 켄트리지가 만든 24개의 이미지와 영상이 무대에 펼쳐지며 만드는 환상적 무대를 담고 있다.
1080i의 고해상도로 인해 괴르네의 표정은 물론 무대의 배경을 다채롭게 채우는 켄트리지의 영상도 생생히 볼 수 있다.
2016년 롯데콘서트홀 개관 기념 공연에서 감동 받은 팬들에게 보너스 트랙의 다큐멘터리(53분 분량)는
내한 공연의 감동을 반추하는 순간을 제공할 것이다.
영상에는 한국어 자막을 갖췄다.



표지사진
젊은 고전주의자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김선욱 세 번째 음반

〈아울로스뉴스〉 2016년 3월호
통권 제 70호 발행 2017년 3월 15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